

# 농림어업 및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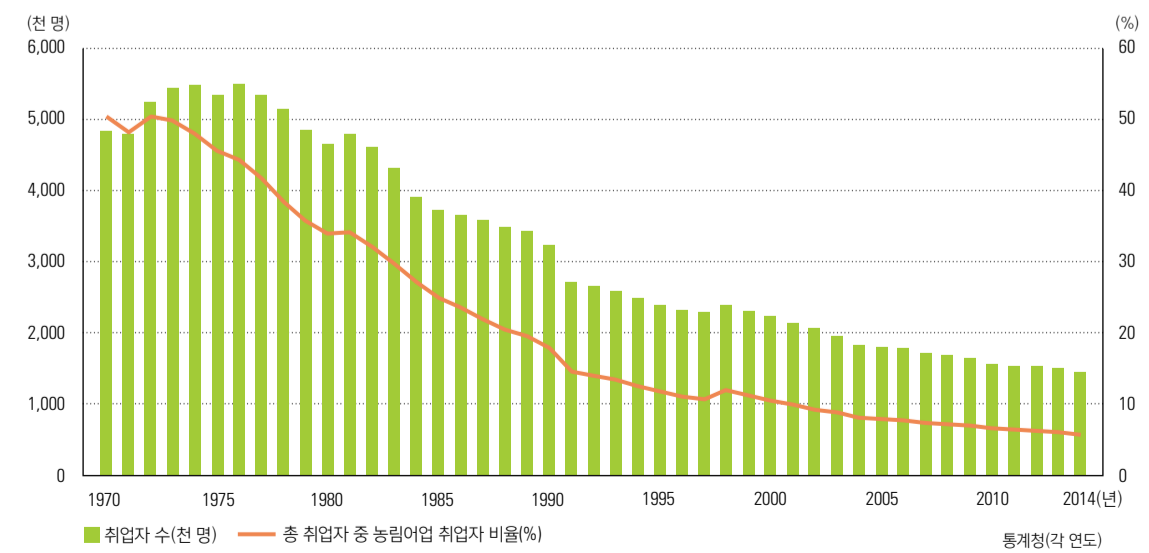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1차 산업은 점차 쇠퇴하여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취업자 비중 측면에서 농림어업은 1970년대 초반에 50%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빠르게 줄어들어 2000년대 들어 10% 아래로 떨어졌고, 2014년 현재는 5.7%에 불과하다.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이보다 훨씬 극적이다. 1970년 당시 농림어업이 총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7%였는데, 1990년대 초반에 5% 아래

로, 2000년대 초반 이후는 3%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 성장에 따라 1차 산업의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많은 국가가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1차 산업, 특히 농림어업의 비중 감소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농업 생산액 비중이 40%에서 7%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가 100년 이상 소요되었고, 미국, 독일, 프랑스는 90년 이상이 걸렸다. 가까운 일본조차도 73년이 걸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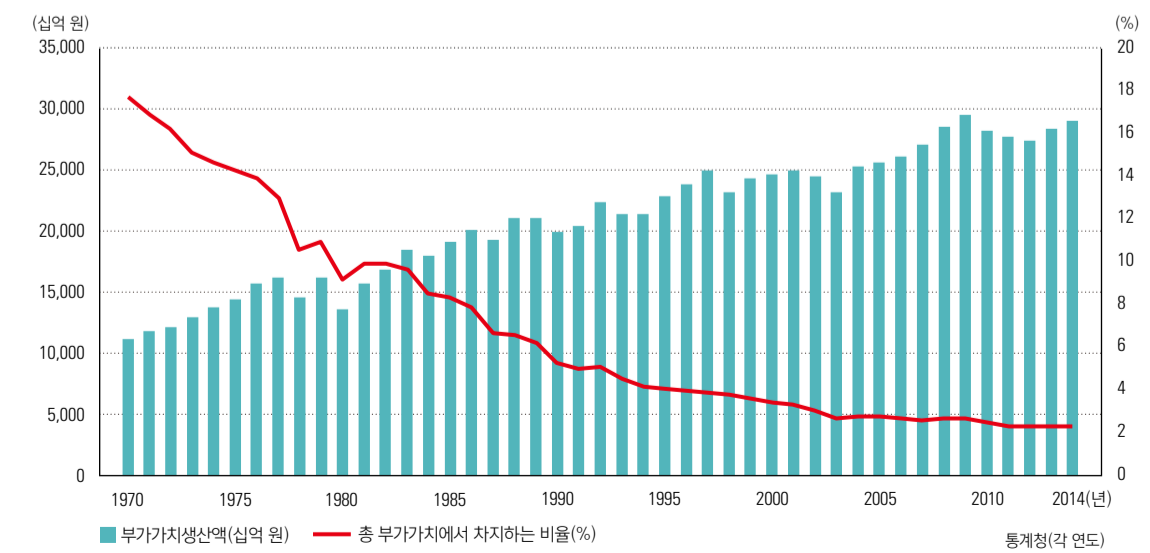
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26년이 걸렸을 뿐이다. 또 농업 취업자 비중이 40%에서 7%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기간도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최소 40년 이상, 일본조차도 31년이 걸린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겨우 14년 걸렸다. 농림어업의 쇠퇴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는 모든 지역에 걸쳐 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서 농림어업 종사자들이 도시로 빠져나갔고, 신규 농림어업 취업자는 매우 적었다. 하

지만 일부 시·군·구 지역은 농림어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여전히 농림어업 취업자 비중이 매우 높다. 2010년 기준으로 취업자의 1/3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시·군·구의 숫자가 7개에 이르며,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지역도 34곳에 이른다. 대도시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군 지역들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농림어업 취업자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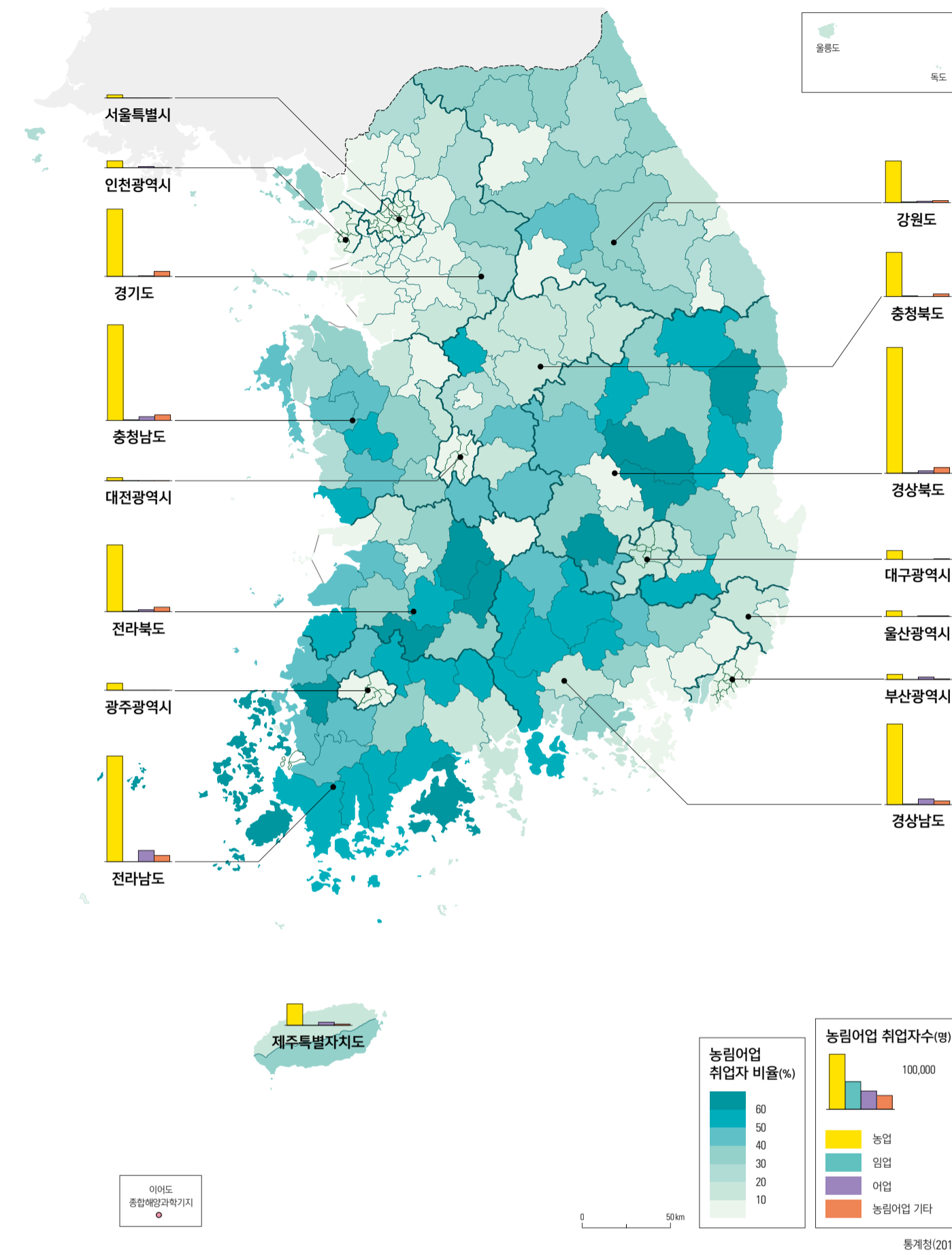


농림어업 부가가치 생산액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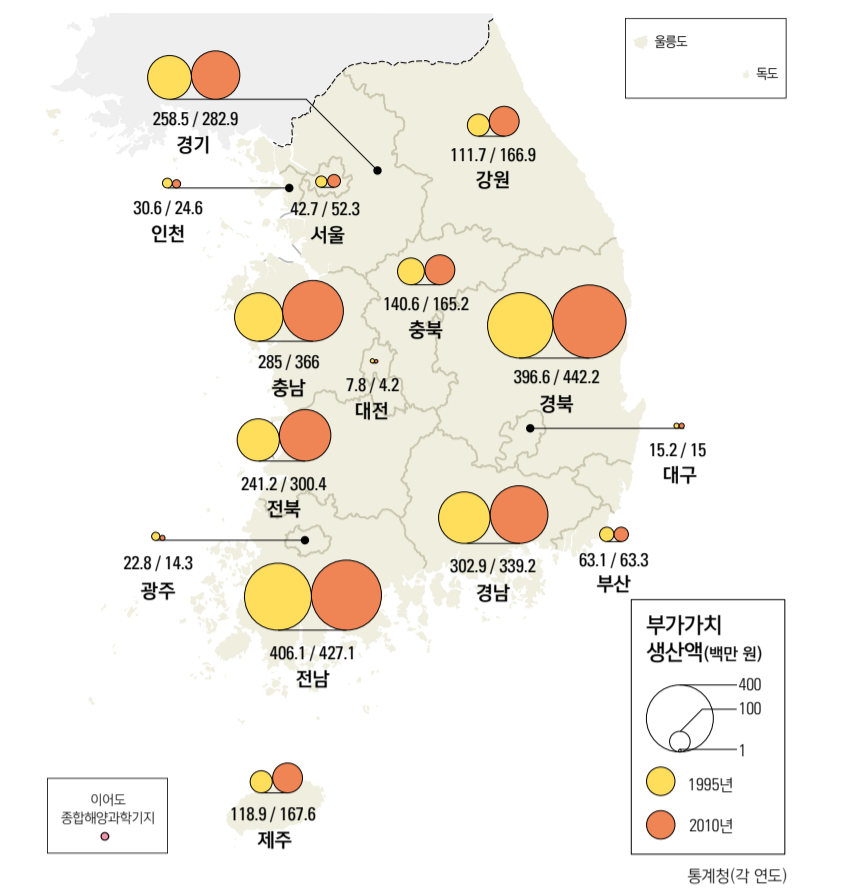


## 농림어업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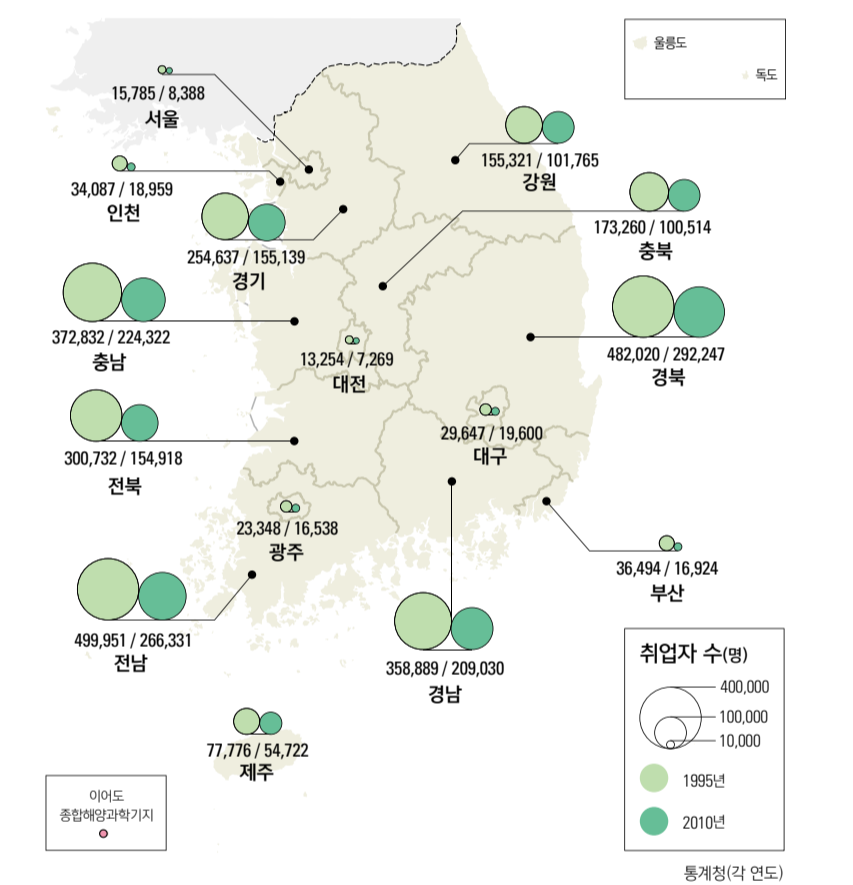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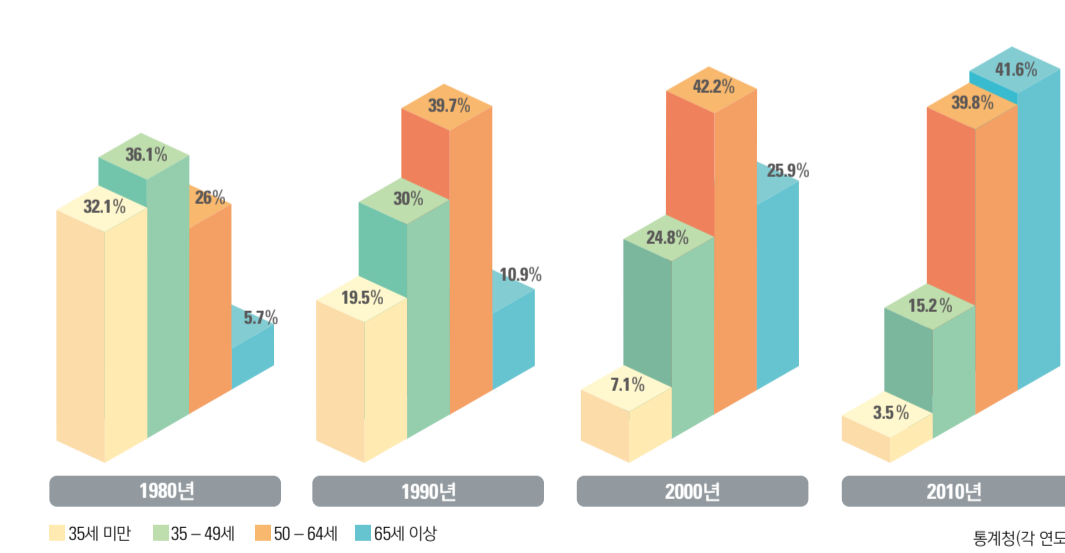
농림어업 생산액



농림어업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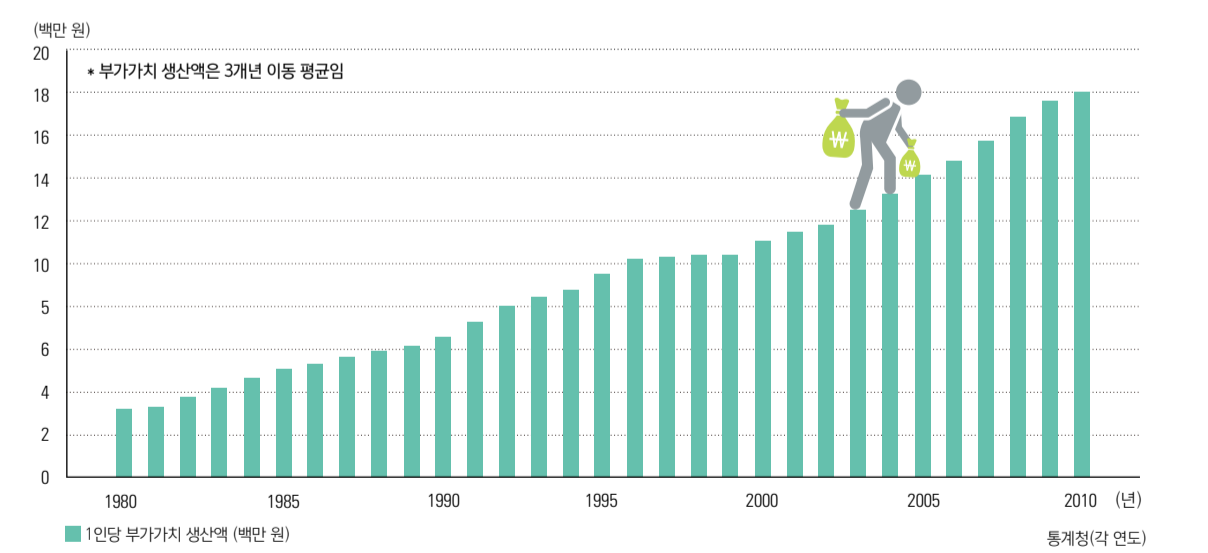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 분포 변화



농림어업 취업자의 연령 구조도 1980년 이후 크게 변화했다. 1980년 당시 농림어업 취업자 중 35세 미만 취업자의 비율이 32.1%인 반면에 6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은 5.7%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는 각각 3.5%와 41.6%로 역전되었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

데 2000년 이후, 비농업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으로 직업을 바꾸는 귀농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0년대 초기에는 귀농 인구가 매년 1,000명 내외였지만, 2011년 이후 귀농 인구는 매년 10,000명을 넘고 있다. 2013년 기준으로 귀농 인구 중 70% 이상이 50대 미만이고, 40대 미만 귀농 인구의 비

농림어업 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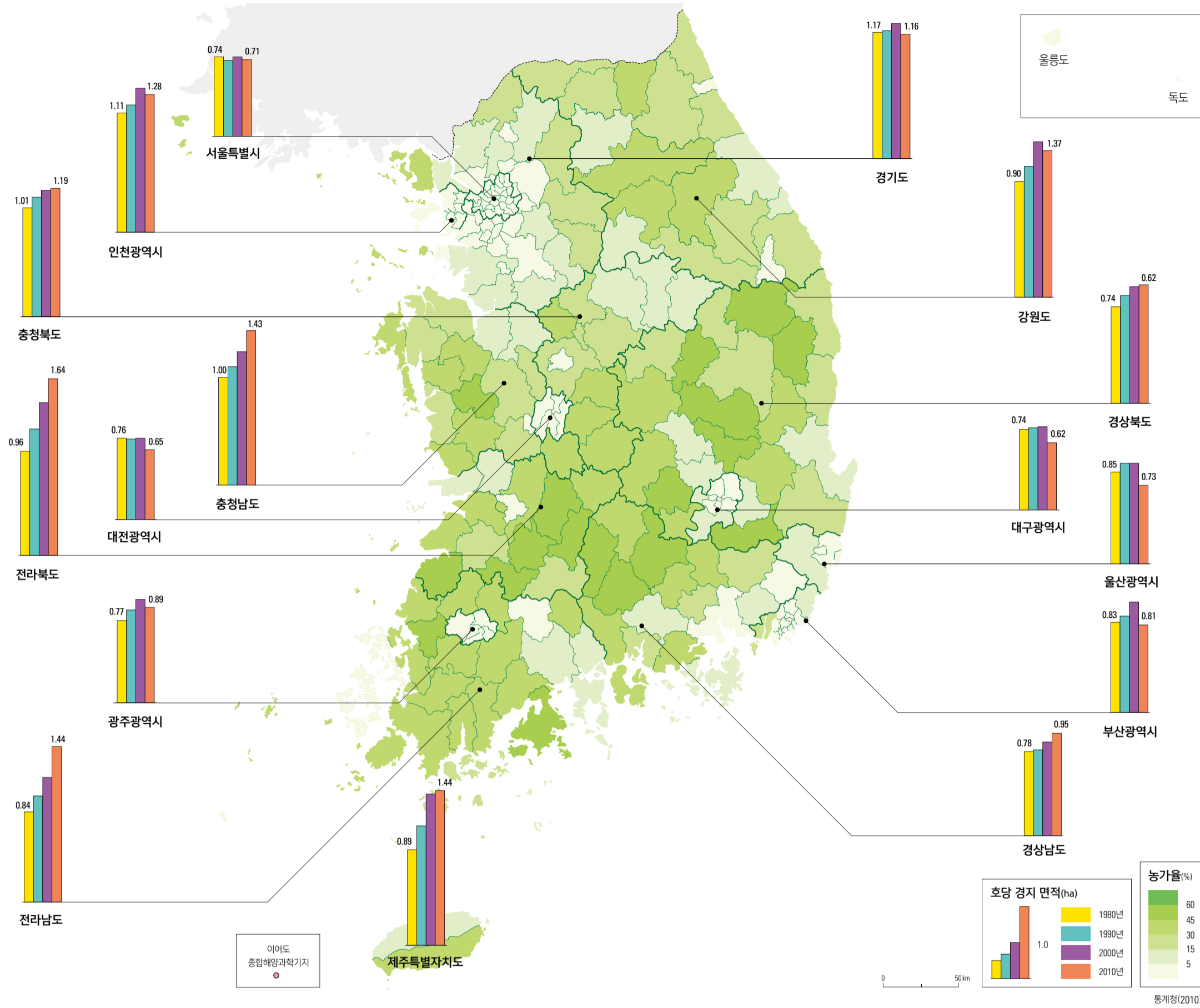
율도 전체의 1/3을 넘는다.

한편 우리나라 농림어업 생산액은 꾸준히 증가하였지만, 시·도별로 어느 정도 다른 변화 패턴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5년과 2010년 사이 농림어업 생산액의 변화 양상을 시·도별로 비교해 보면,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도가 다른 시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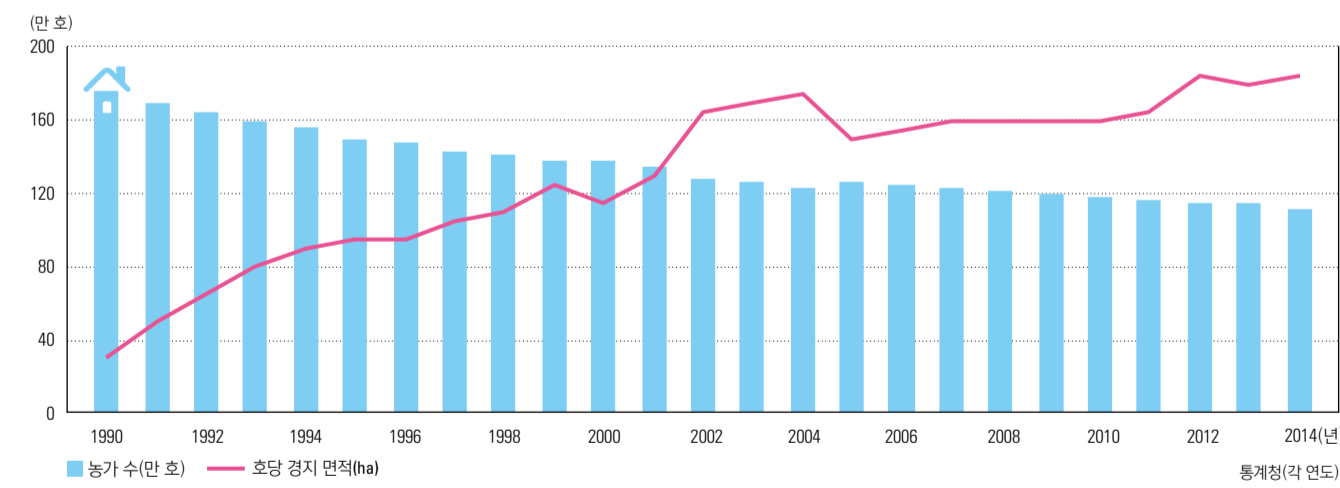
비해 생산액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도시화 및 산업화의 영향을 적게 받아 농림어업 발전 잠재력을 키울 수 있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농업 구조

농가와 경지 면적(2010년)



농가 수 및 호당 경지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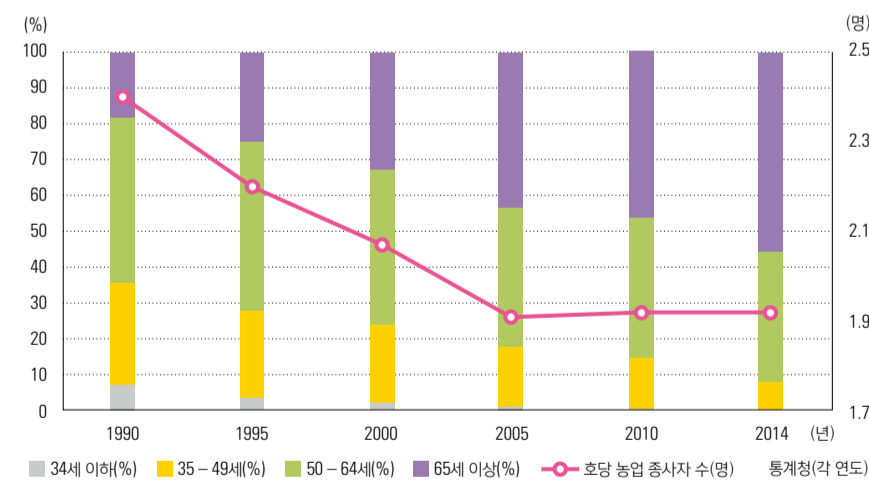


농업 취업자와 마찬가지로 농가의 숫자도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1990년 당시 약 176만 호였던 농가 수는 2014년에는 112만 호로 그 기간 동안 농가 수는 36.7%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에 농업 종사 인구는 424만 명에서 226만 명으로 46.7% 감소하였다. 이처럼 농가 수 감소 속도에 비해 농업 인구 감소 속도가 훨씬 빨랐다. 현재 농가의 노동력 구조를 고려해 볼 때 앞으로 농가 수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

준으로 전체 농가의 약 87%는 농업 종사자 수가 2명 이하인 농가들이다. 농가의 절대 다수가 경영주 단독 혹은 경영주 부부 중심의 노동력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2010년 현재 농가 경영주의 55.7%는 65세 이상 고령 경영주이다. 결국 현재 농가 중 다수는 경영주가 은퇴할 경우 탈농이 불가피한 농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농가 감소 속도가 농업 인구 감소 속도를 앞지를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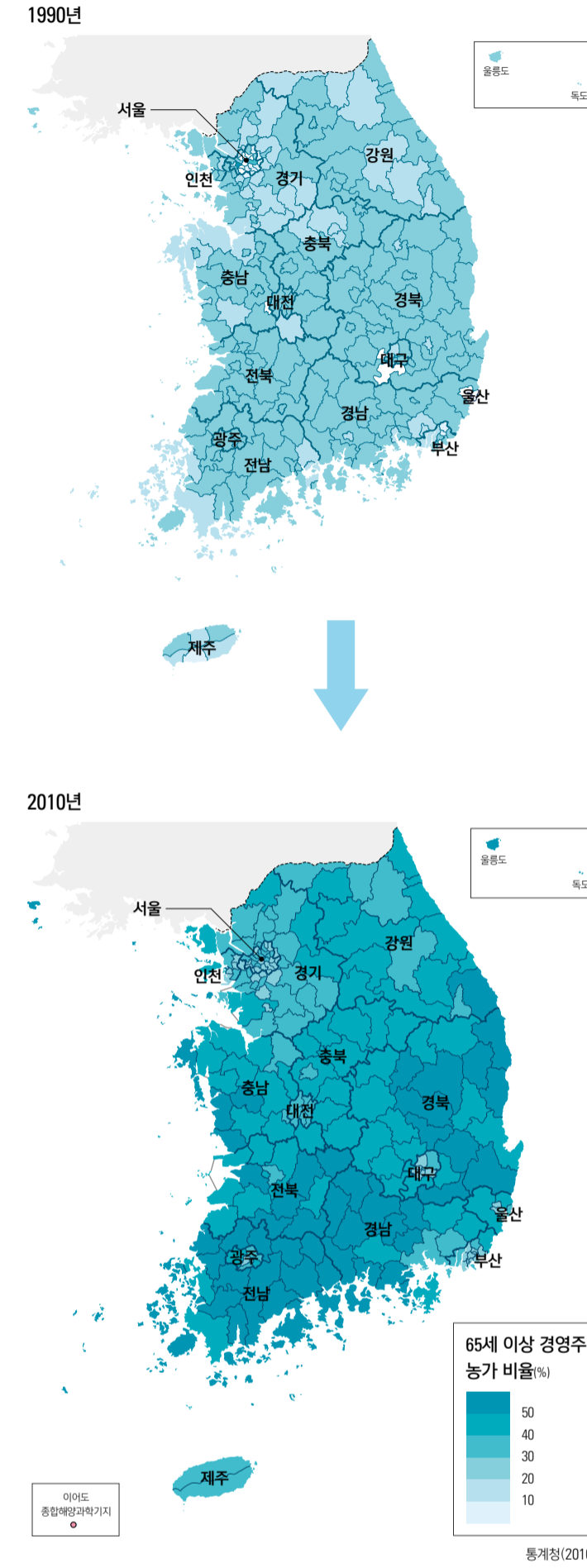
시·군·구의 전체 가구 중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 즉 농가농도 크게 줄어들었다. 1990년 당시 전국 시·군·구의 평균 농가농도는 약 32.4%이었는데, 2010년에는 약 17.4%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10년 현재 농가농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전체 230개 중 113곳이나 된다. 여전히 농가농이 40%를 넘는 시·군·구 35곳이나 되는데, 전라남·북도 및 경상북도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한편 2010년 현재 경영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영주 연령 계층별 농가 비율 및 호당 농업 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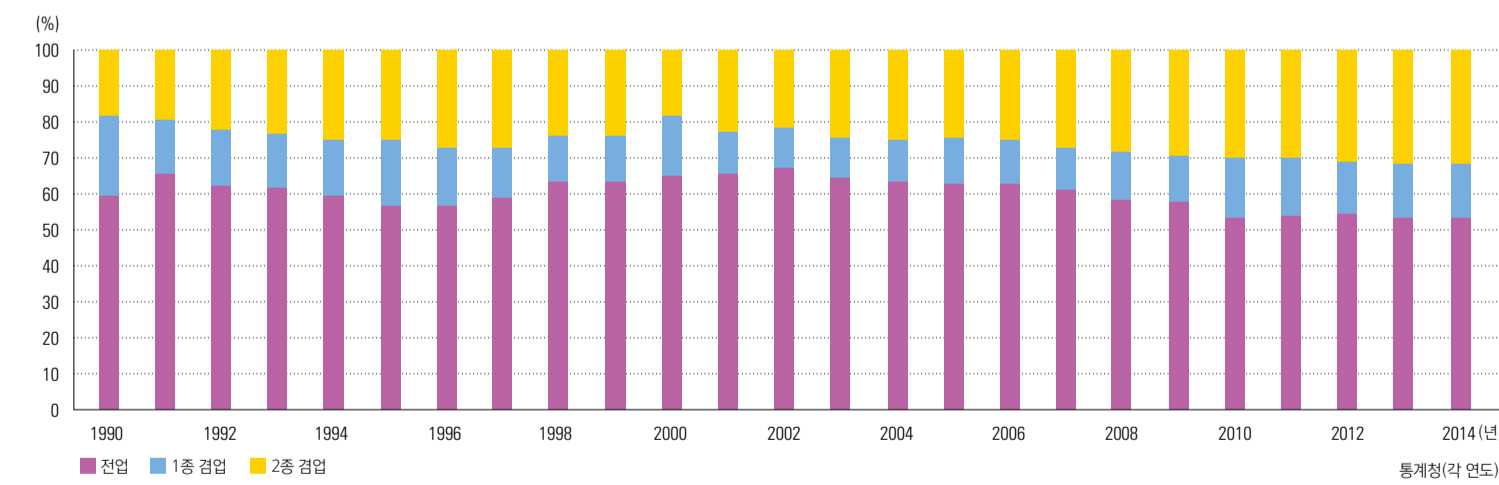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시·군·구는 53곳이다. 1990년의 경우 단 한 곳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경영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농가의 비율이 20%를 넘지 않은 시·군·구는 1990년 179곳에서 2010년 5곳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수도권 및 대도시 주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훨씬 심하다.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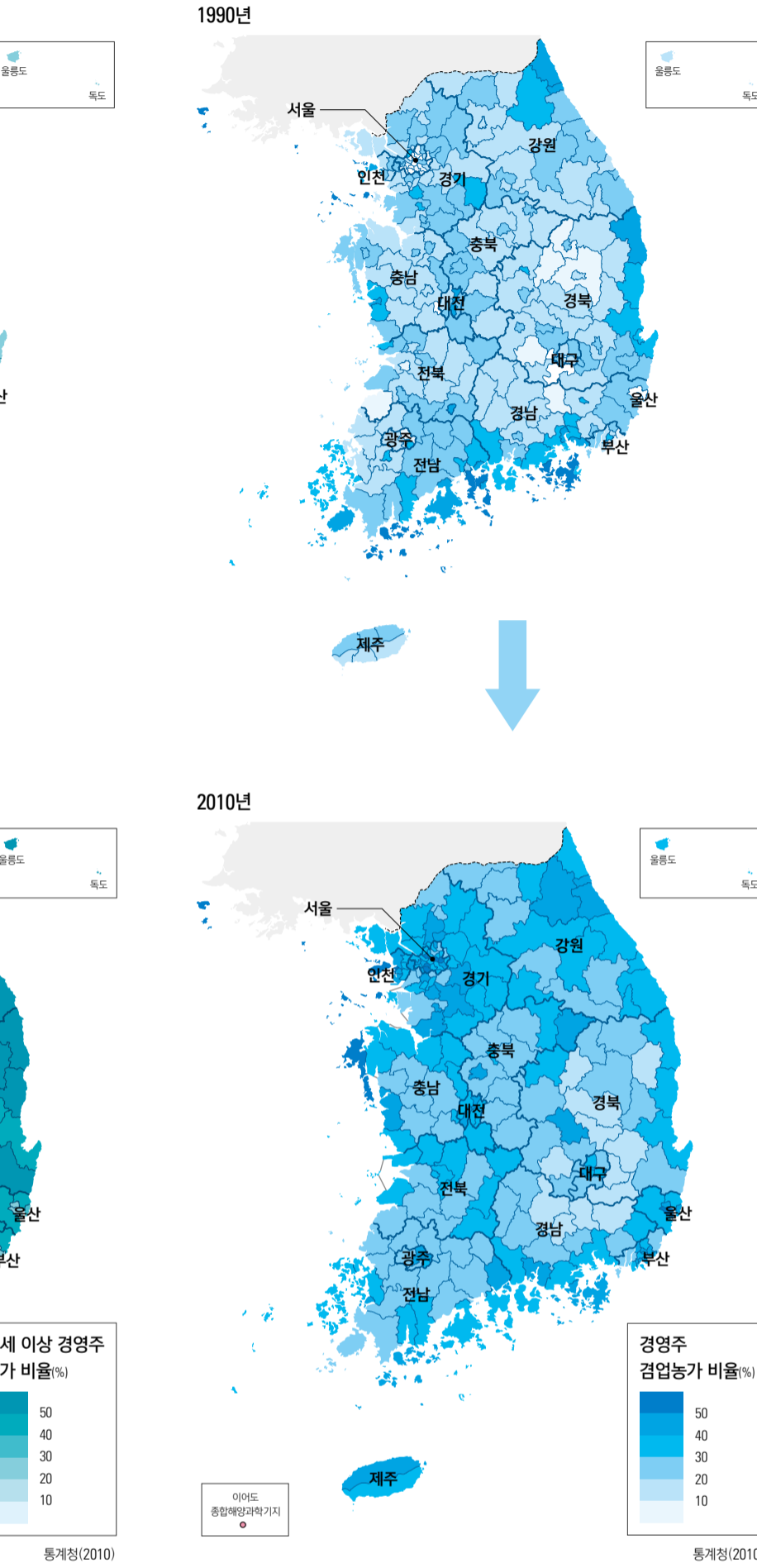


전-겸업별 농가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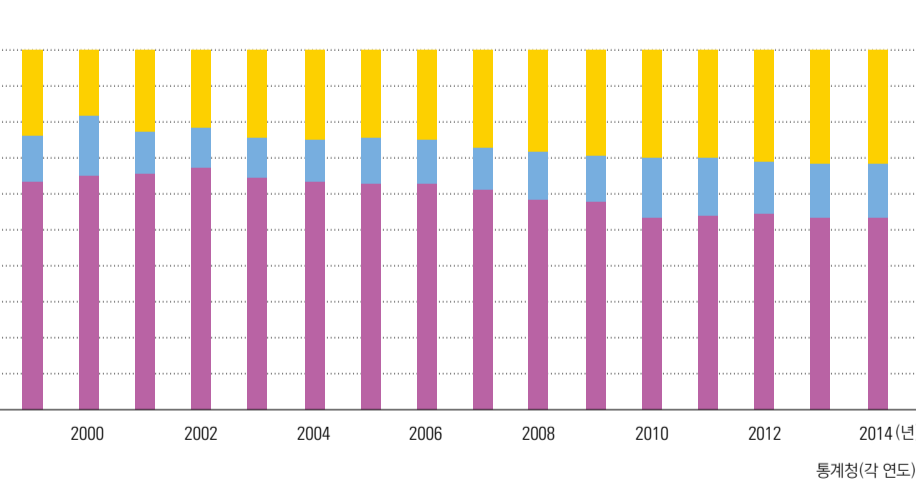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의 본격적 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농가 수의 대규모 감소와 함께 농가의 소득 구조도 크게 바뀌었다. 비농업 소득이 농업 소득보다 더 많은 제2종 겸업농가의 비율이 1990년의 18.4%에서 2014년의 31.9%로 높아졌으며, 경영주가 비농업 활동에 참여하는 농가의 비율도 1990년 22%에서 2010년 30.5%로 크게 늘어났다. 그만큼 비농업 활동에 치중하는 농가가 많아졌음을 보여준다.

농가 경영주의 겸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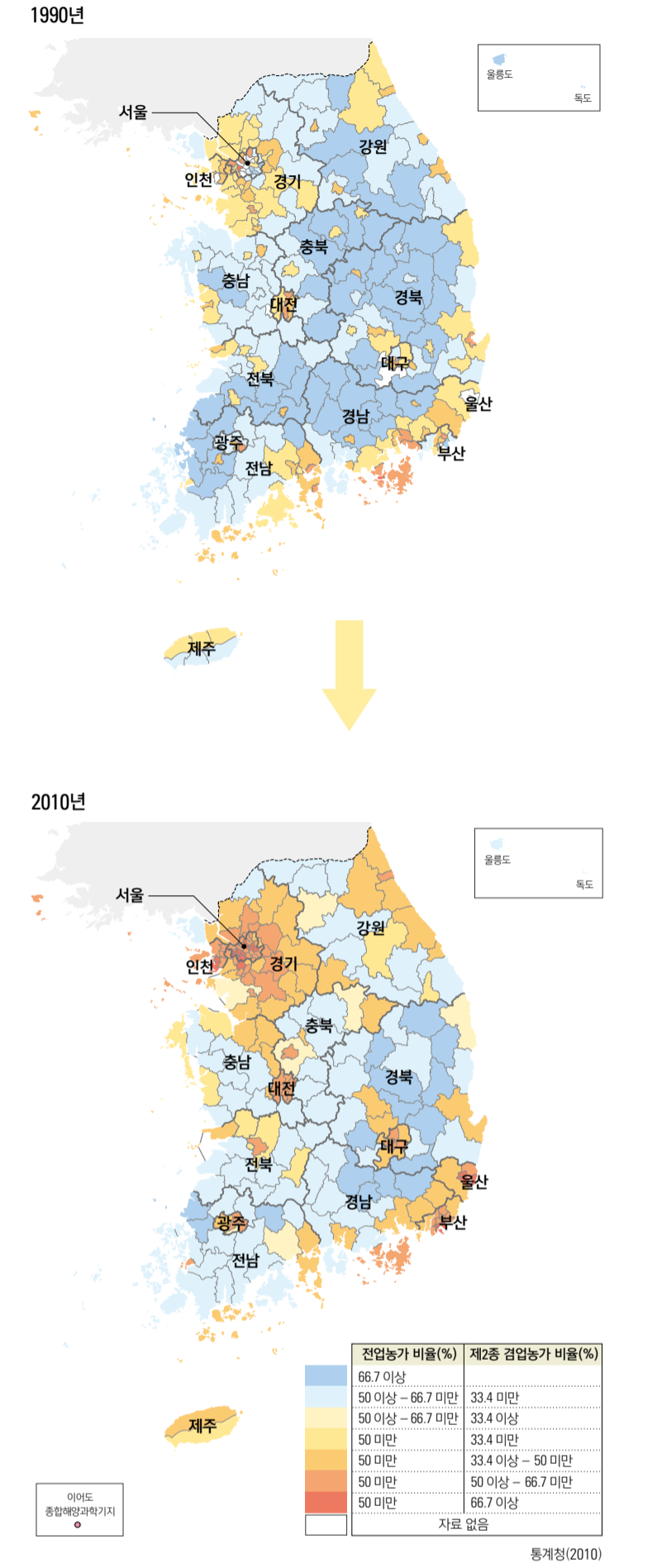


경영주 겸업농가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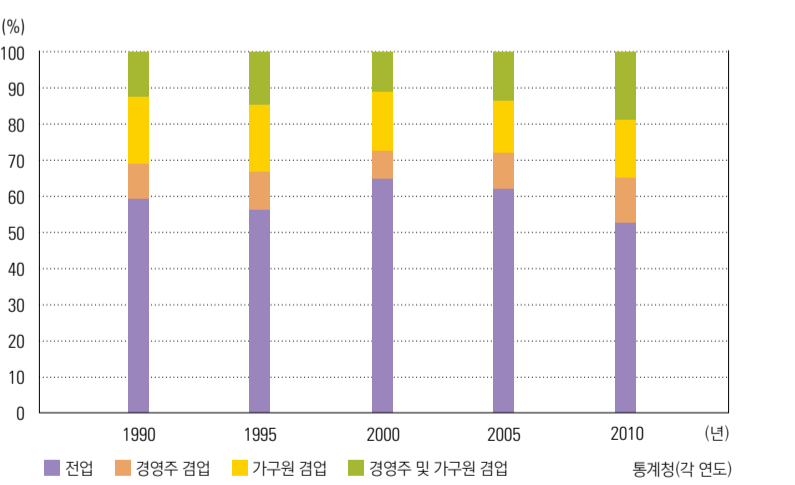


농가의 비농업 소득 의존 양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제2종 겸업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이 넘는 시·군·구 지역이 1990년 당시 64곳에서 2010년에는 131곳으로 늘어났다. 나아가 제2

겸업농가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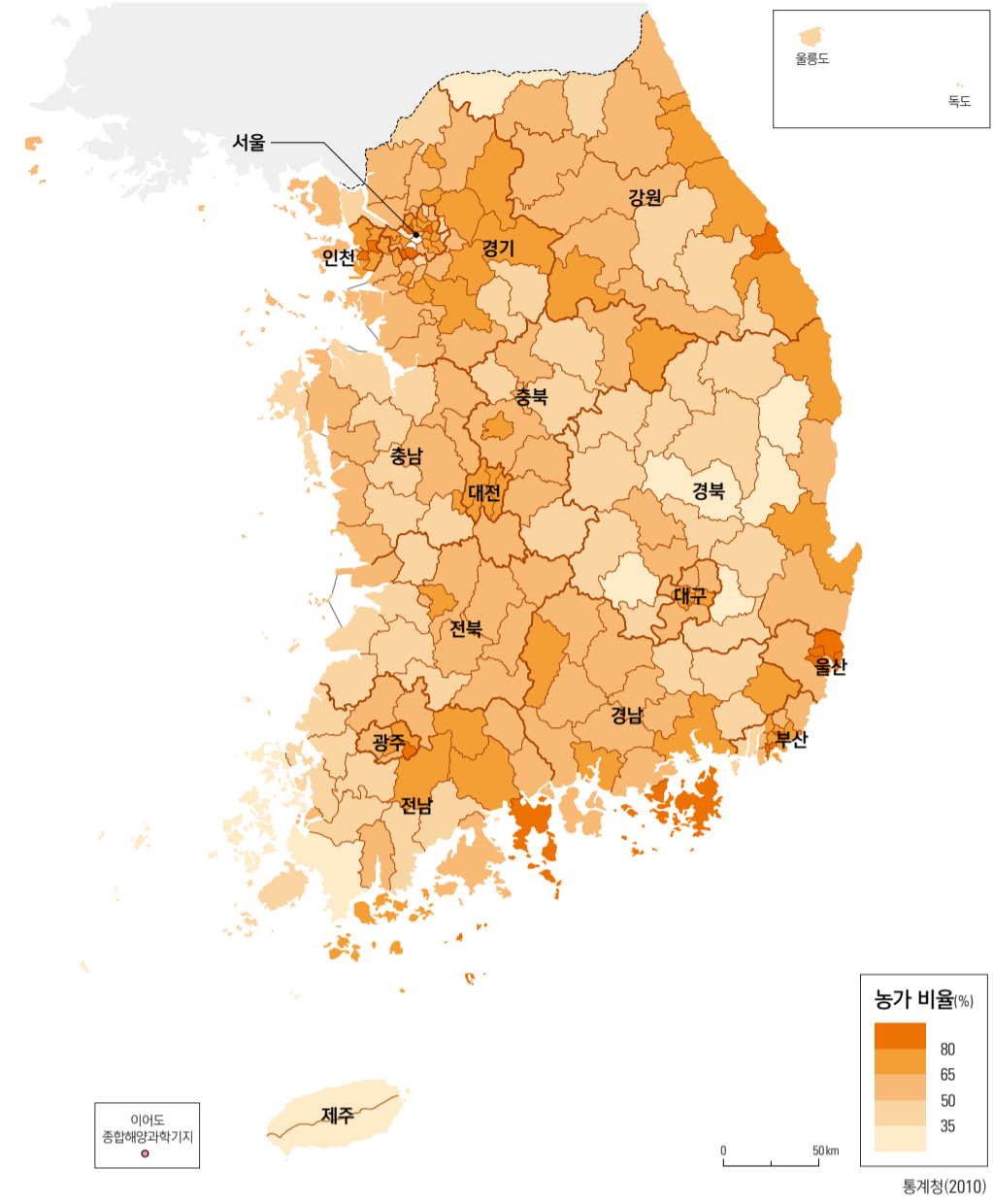
경영주 겸업 농가 구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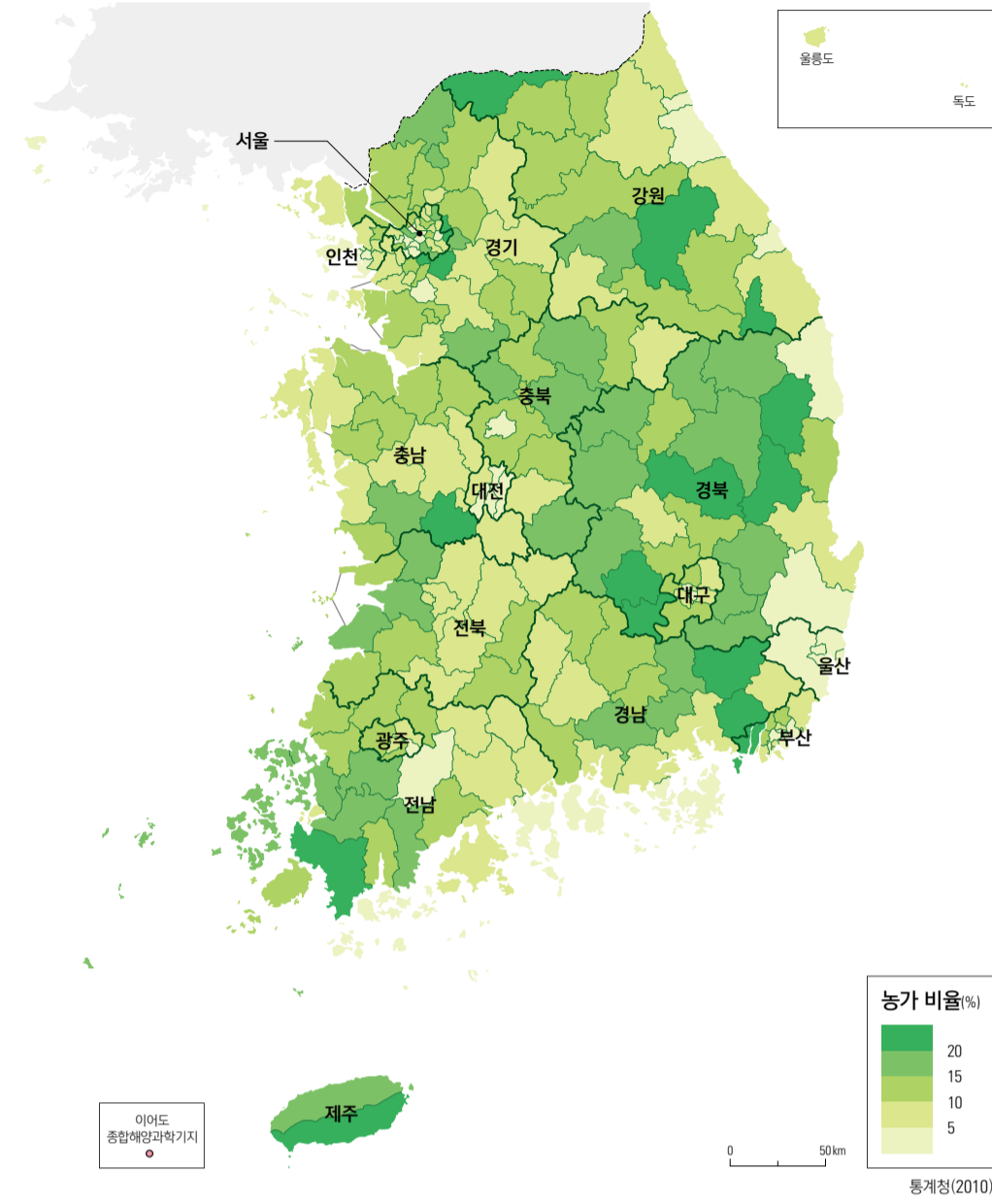
종 겸업농가가 전체 농가의 2/3를 넘는 시·군·구의 숫자도 1990년 당시 19곳에서 2010년에는 85곳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경영주가 비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농가의 비율이 30%를 넘는 시·군·구도 1990년 48곳에서 2010년 146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겸업농가의 증가 현상, 농가의 비농업 소

농가 유형의 양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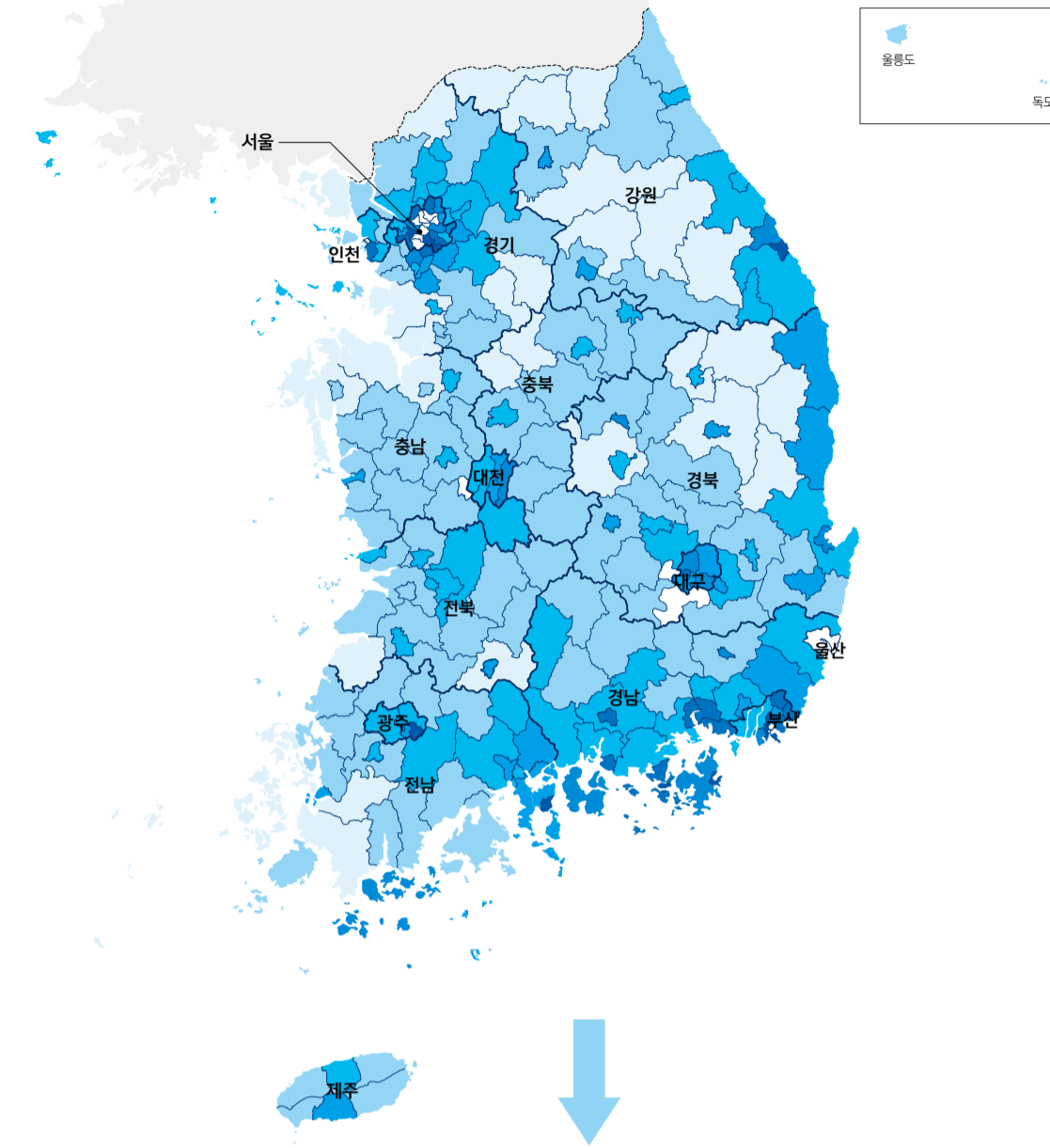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500만 원 미만 농가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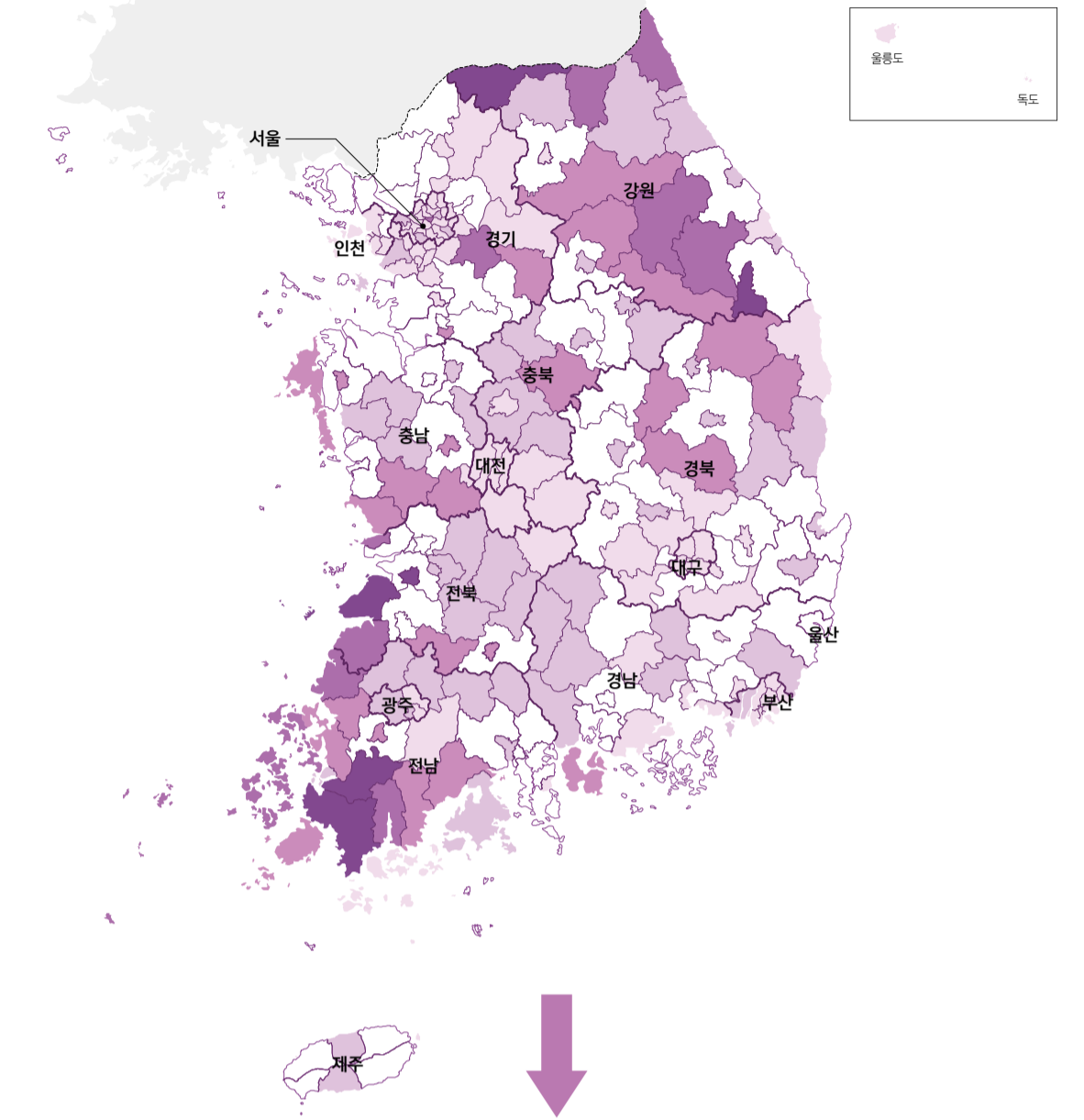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3천만 원 이상 농가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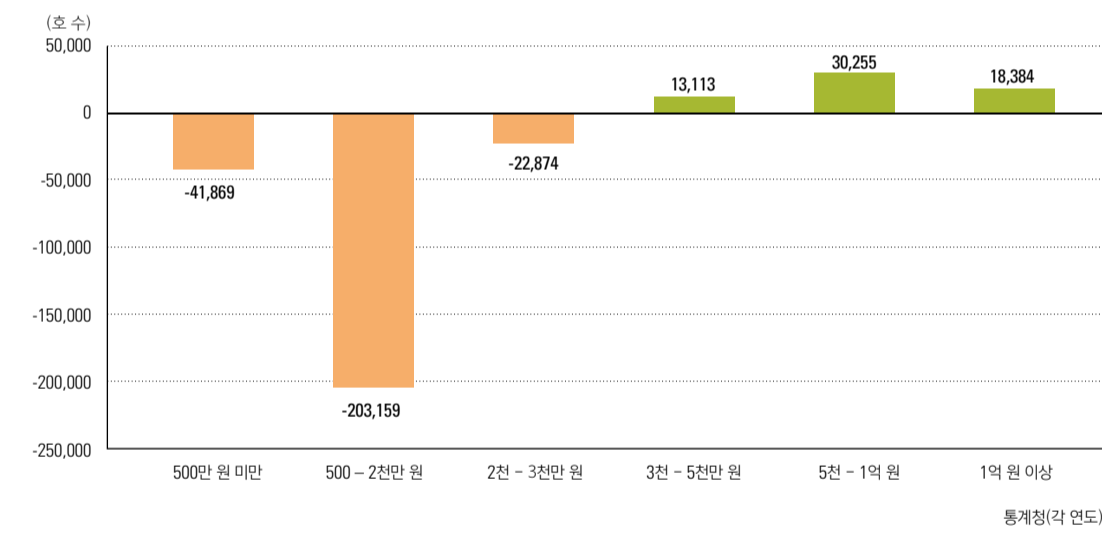
경지 면적 0.5ha 미만 농가 비율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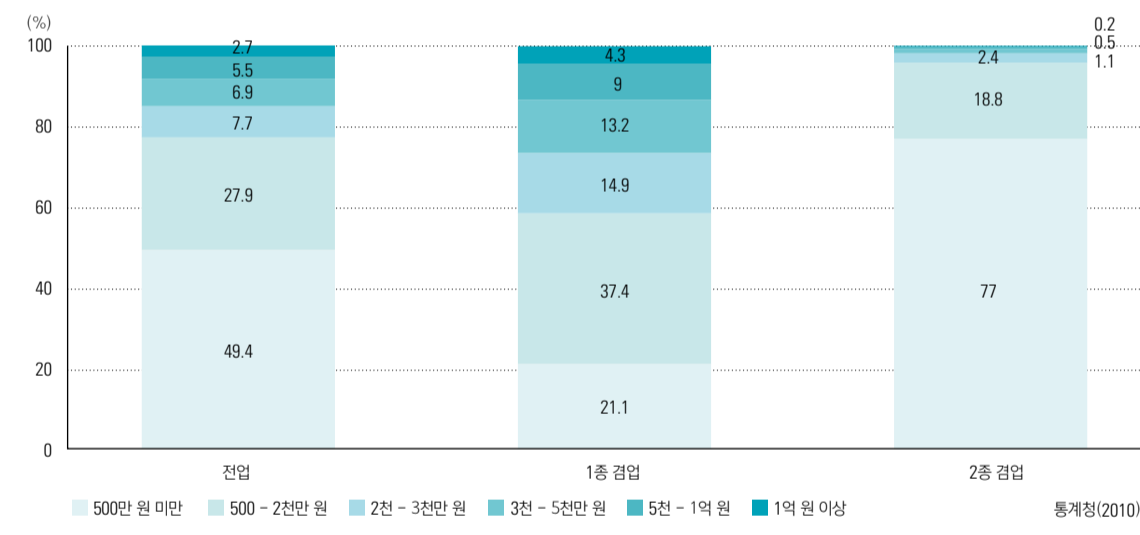
경지 면적 3.0ha 이상 농가 비율  
199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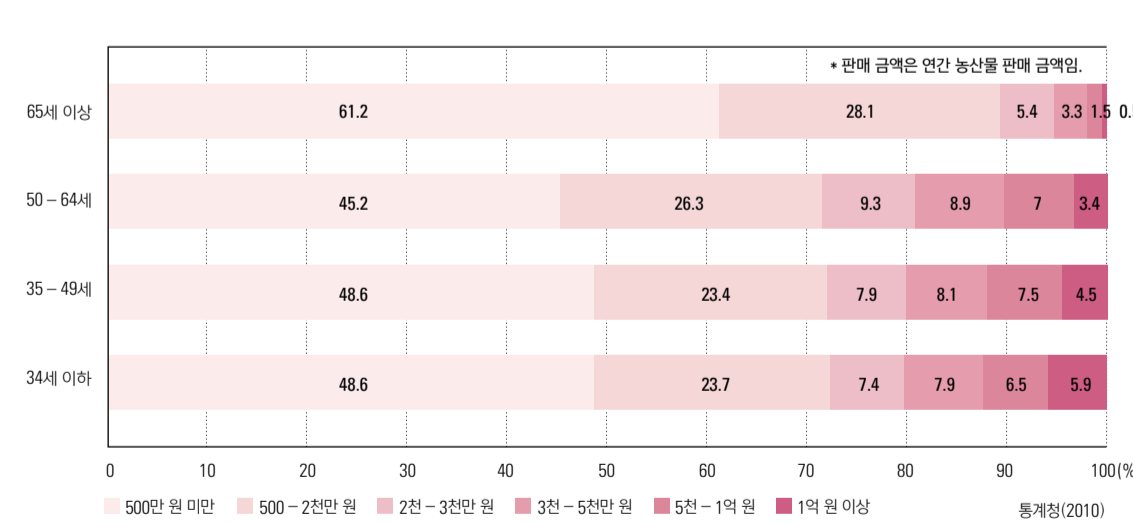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별 농가 호수 변동(2000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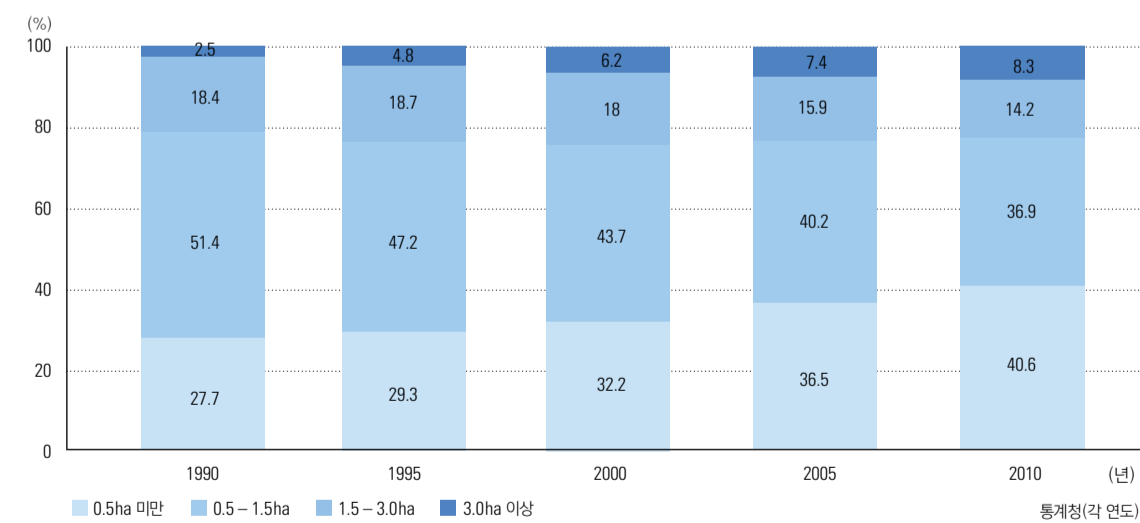
전·겸업별 농가의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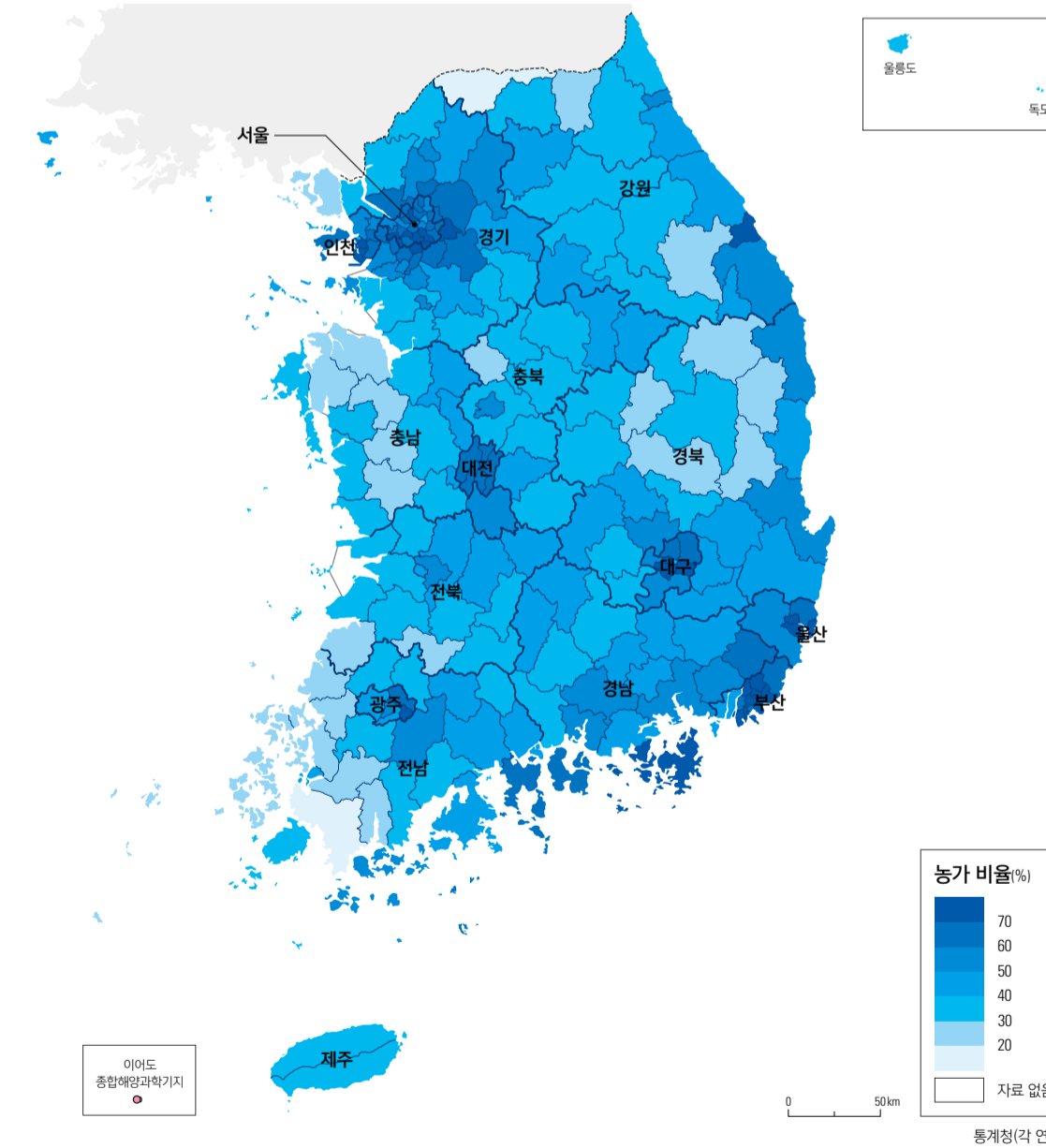
경영주 연령 계층별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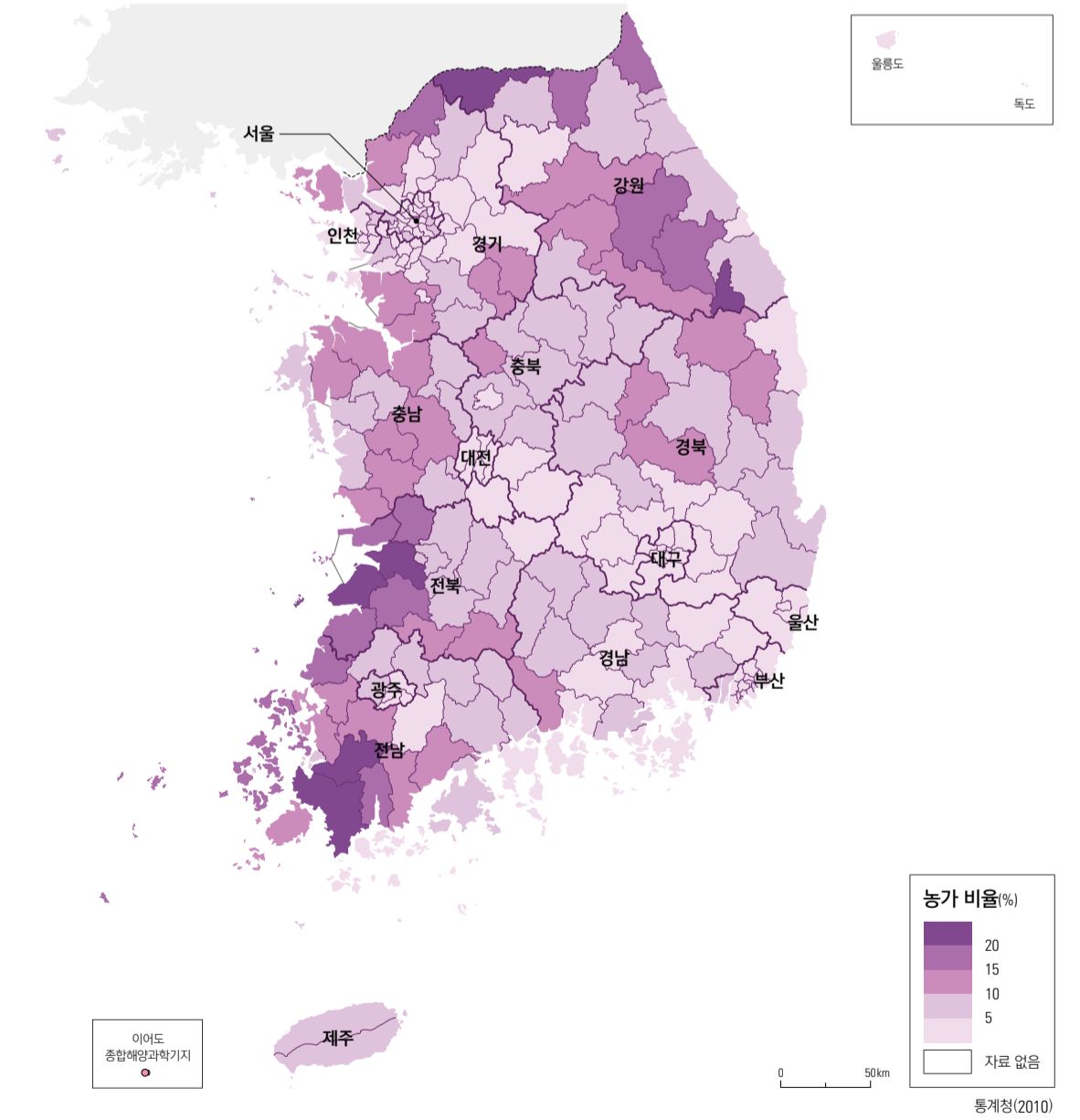
경지 규모 계층별 농가 구성비 추이



2010년



2010년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농가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대규모 상업 농가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농산물 판매 소득이 거의 없는 영세 농가의 상대적 비중도 커지고 있다. 이른바 농가 소득의 양극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에서 2010년 사이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

이 3천만 원이 넘는 농가의 숫자는 약 6.2만 호, 비율로는 6.4% 증가하였다.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농가도 약 1.8만 호, 1.7% 증가하였다. 대규모 상업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경상남·북도, 충청북도 그리고 강원도의 비대 도시권 지역에 속한 곳이다. 다른 한편으로 농산물 판

매가 전혀 없는 농가도 같은 기간에 약 3.4만 호 늘어났다. 또 2010년의 경우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영세 농가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은퇴를 앞둔 농가이거나 비농업 활동에 치중하는 취미 농가들이다. 2010년 현재 경영주 연령

이 49세 이하인 농가의 약 절반이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이들은 전형적인 취미 농가로 여겨진다. 연간 농산물 판매 금액이 5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농 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도시 주변 지역 혹은 해안 지역에 위치한 시·군·구들이다.

1990년과 2010년 사이에 경지 규모가 0.5ha 미만인 영세 농가 그리고 3.0ha 이상인 대규모 농가의 비율이 각각 크게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시·군·구 지역에서 0.5ha 미만 농가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0.5ha 미만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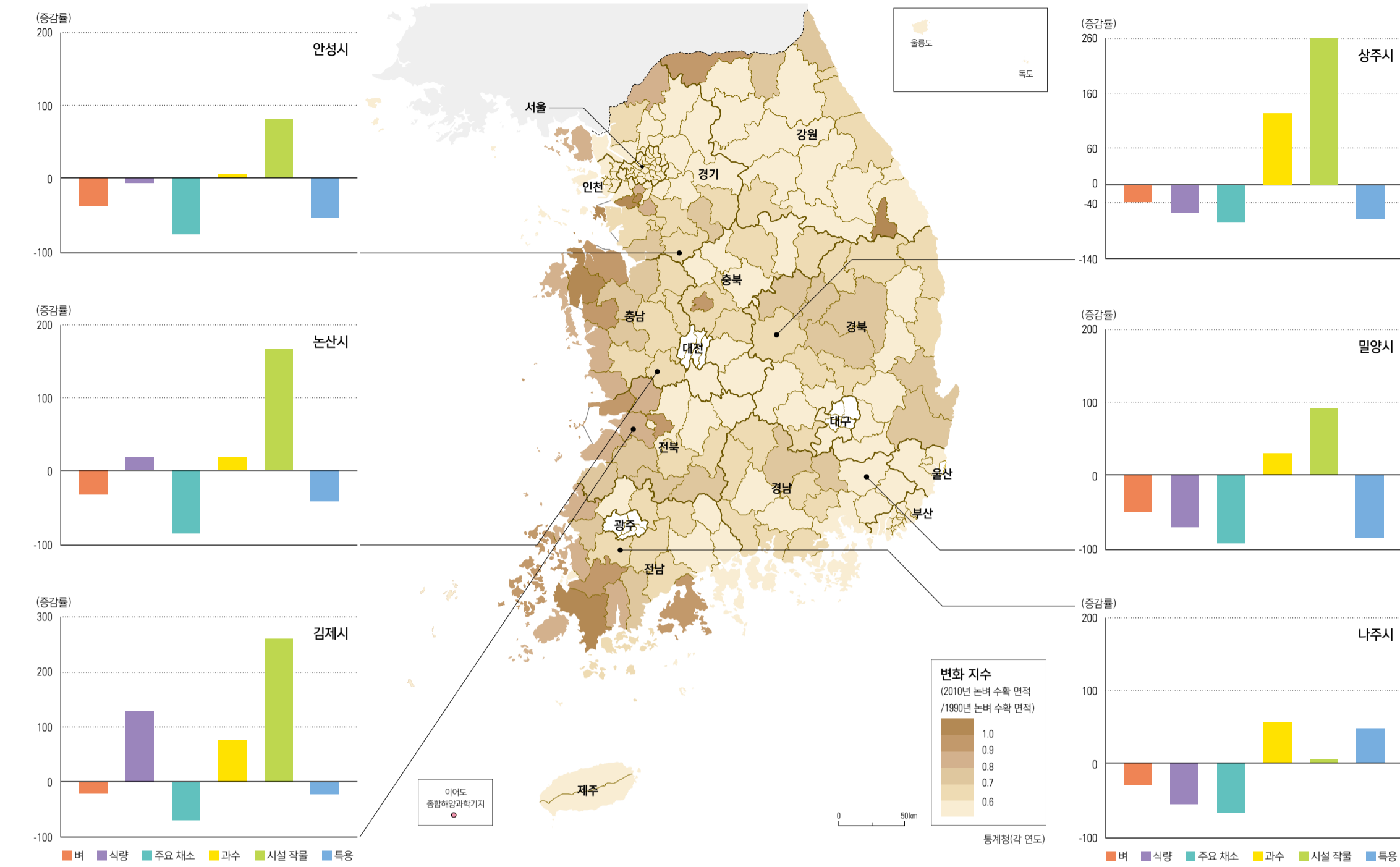
를 넘는 시·군·구가 1990년에는 26개 중 43곳에 불과하던 것이 2010년에는 230개 중 108곳으로 늘어났다. 대도시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구들은 경지 면적 0.5ha 미만인 농가의 비율이 70%를 넘고 있었다. 한편 1990년에서 2010년 사이 대부분 지역에

서 경지 면적이 3.0ha 이상인 대규모 농가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대규모 농가의 비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1990년의 경우 단 3곳에 불과하였지만, 2010년에는 50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0년 기준으로 대규모 농가의 비율이 높은 지역들은 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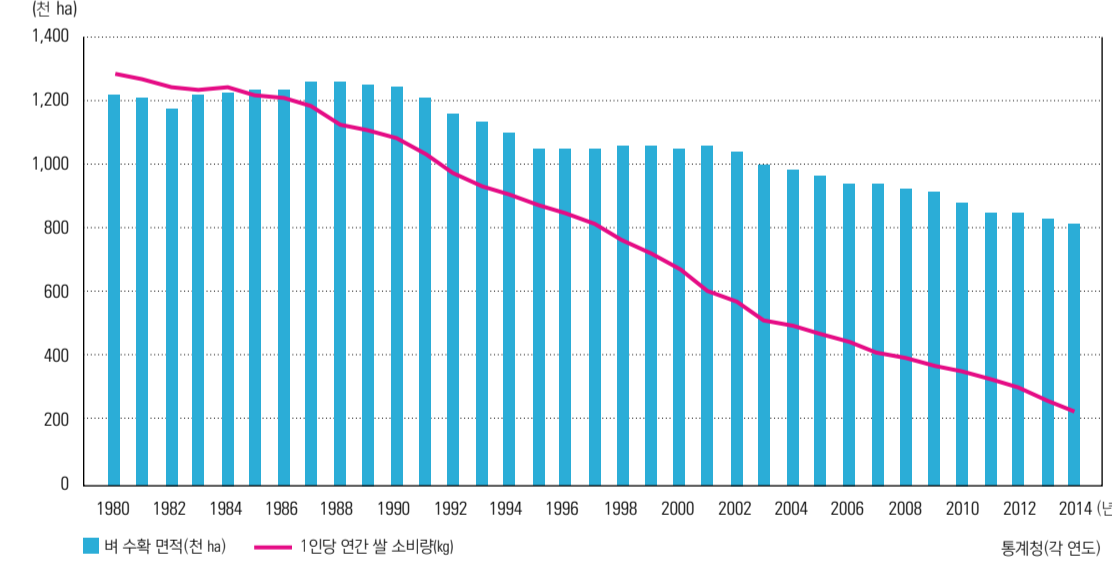
발달한 서해안 일대의 지역들과 고랭지 채소 재배가 성행하는 강원도의 일부 지역들이다.

쌀 생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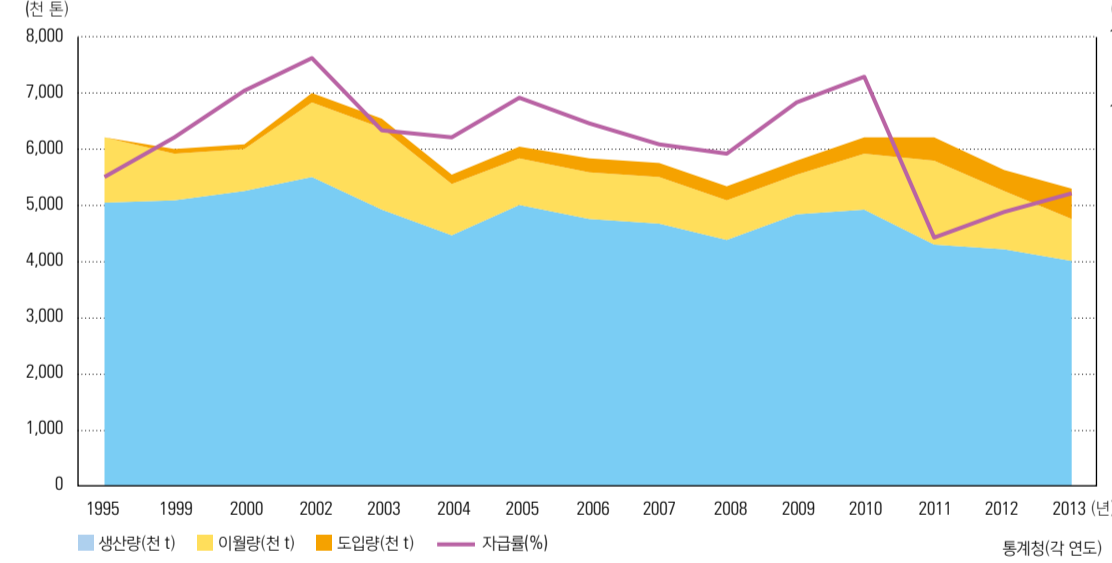
벼 수확 면적의 변화(1990 -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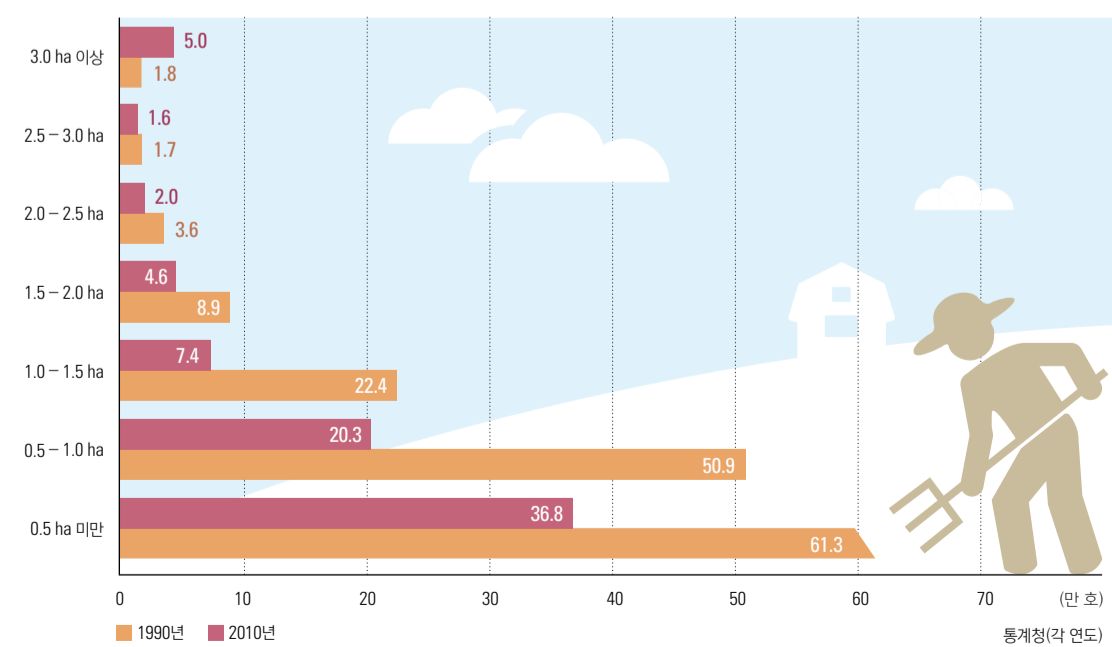
1인당 쌀 소비량, 벼 수확 면적 추이



쌀 공급 및 자금률 추이



벼 수확 면적 규모별 농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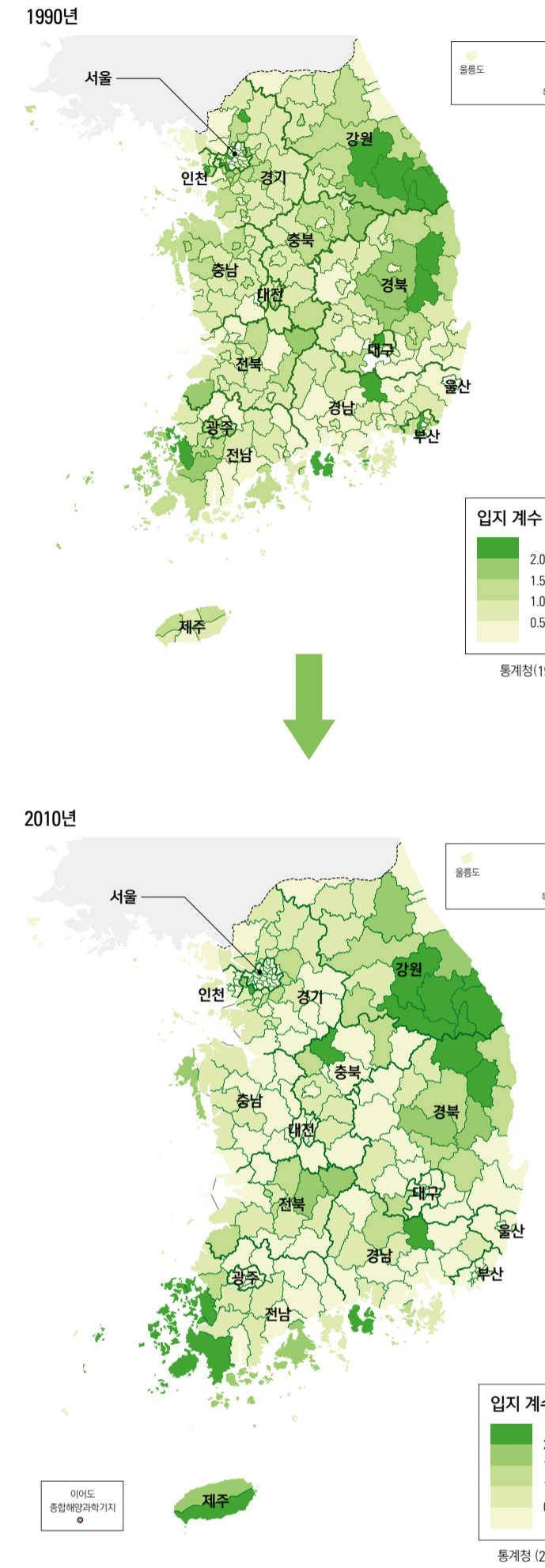
우리나라 농업 생산 구조 변화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쌀 수확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1980년 쌀 수확 면적은 약 122.0만ha였는데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2014년에는 약 81.4만ha로 이 기간 동안 수확 면적이 40.6만ha나 감소하였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1인당 연간 쌀 소비량도 크게 줄어 오히려 쌀 공급 과잉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많은 벼 재배 농가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아예 다른 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있다. 지도는 각 시·군·구별로 1990년의 벼 수확 면적과 2010년의 벼 수확 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1보다 작을수록 1990년 대비 2010년의 벼 수확 면적

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1보다 클 경우 반대의 경우이다. 전국 시·군·구 평균은 약 0.8로 대부분 시·군·구에서 1990년에 비해 2010년의 벼 수확 면적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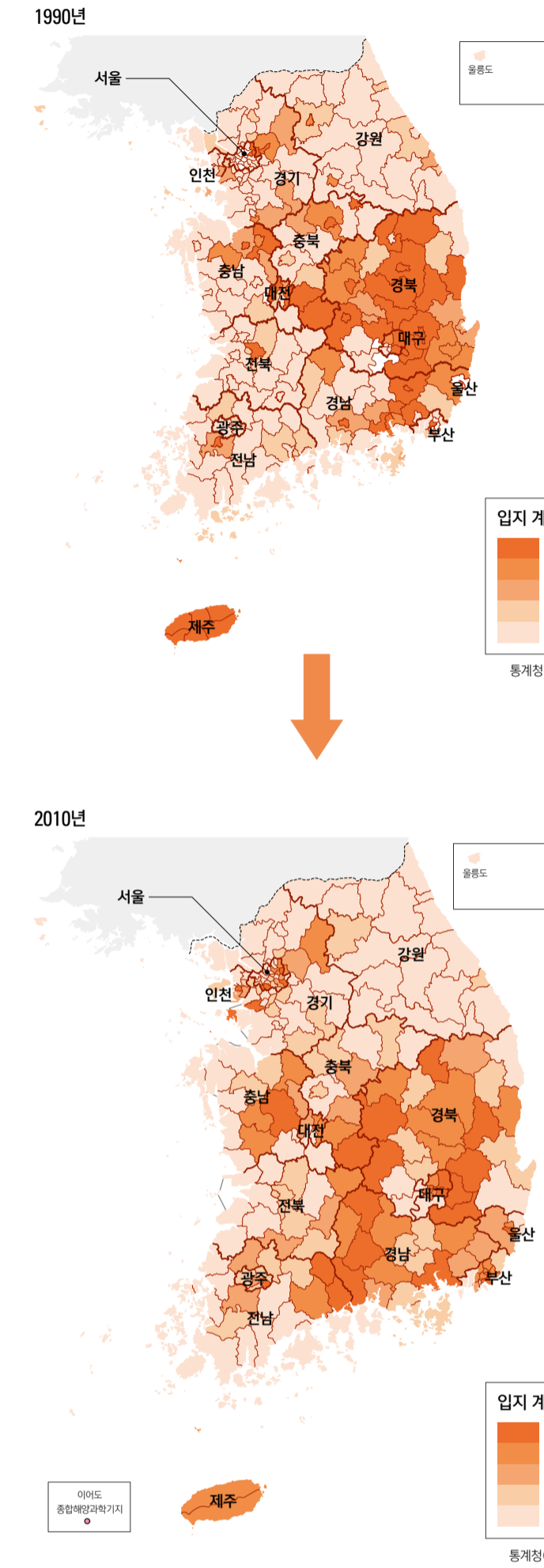
과거 벼 생산이 많았던 지역들도 벼 재배 면적이 급격하게 줄고 대신에 다른 환금 작물 재배 면적을 늘리고 있다. 경기도 안성, 충청남도 논산, 전라남도 나주 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 2010년 현재 이들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1990년에 비해 수천 ha씩 줄어들었고, 반면에 과수와 시설 작물 재배 면적은 수백에서 수천 ha씩 늘어났다.

재배 작물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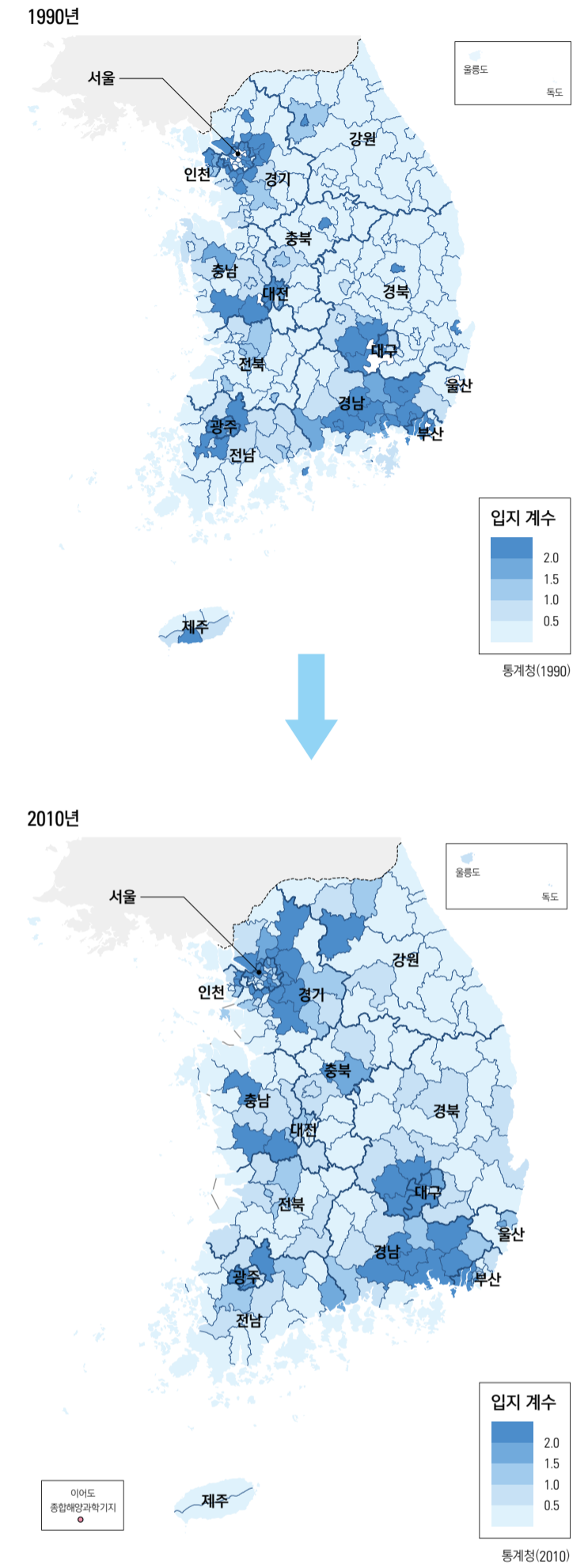
주요 채소 재배 특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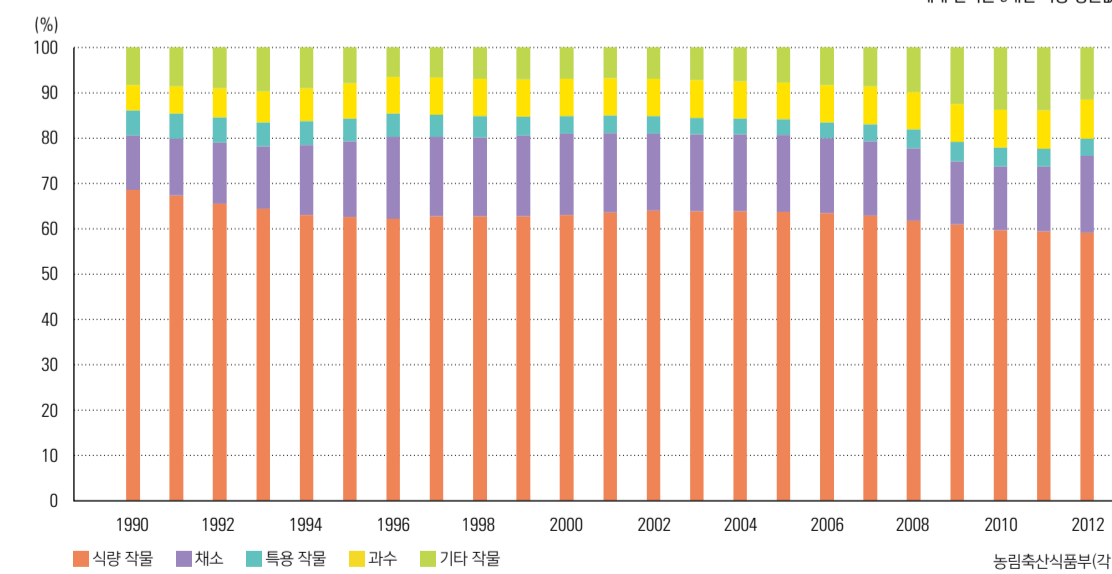
주요 과수 재배 특화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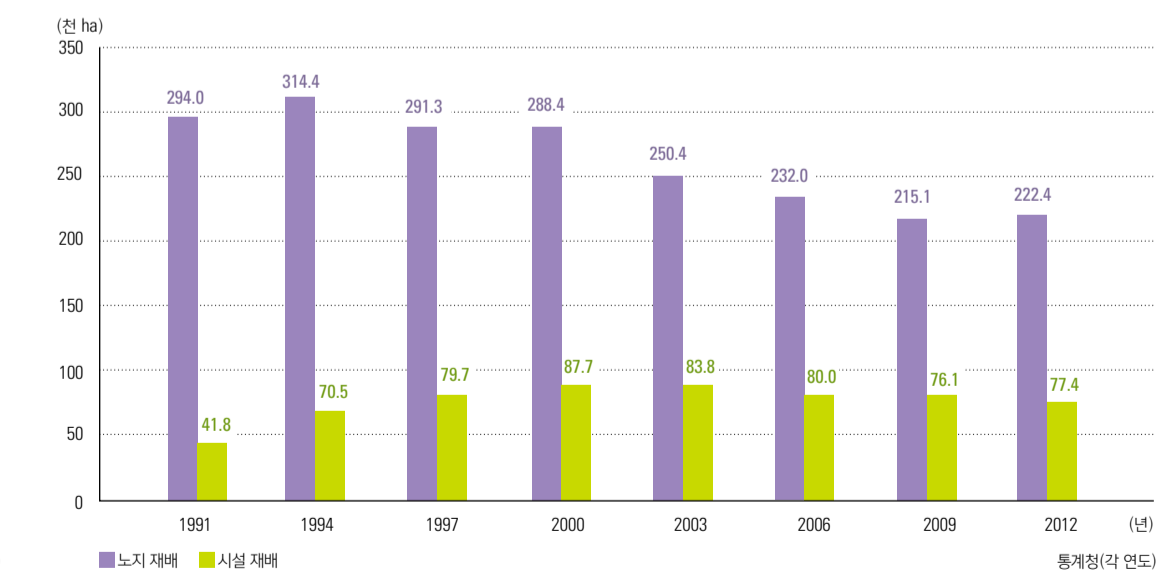
주요 시설 작물 재배 특화 지역



작물별 재배 면적 비중 추이



채소 재배 방식의 변화



이러한 경향은 환금 작물의 입지 변화에서도 확인된다. 과수 재배는 1990년 당시 경상남도 동부 지역의 중심으로 발달하였지만 2010년에는 전라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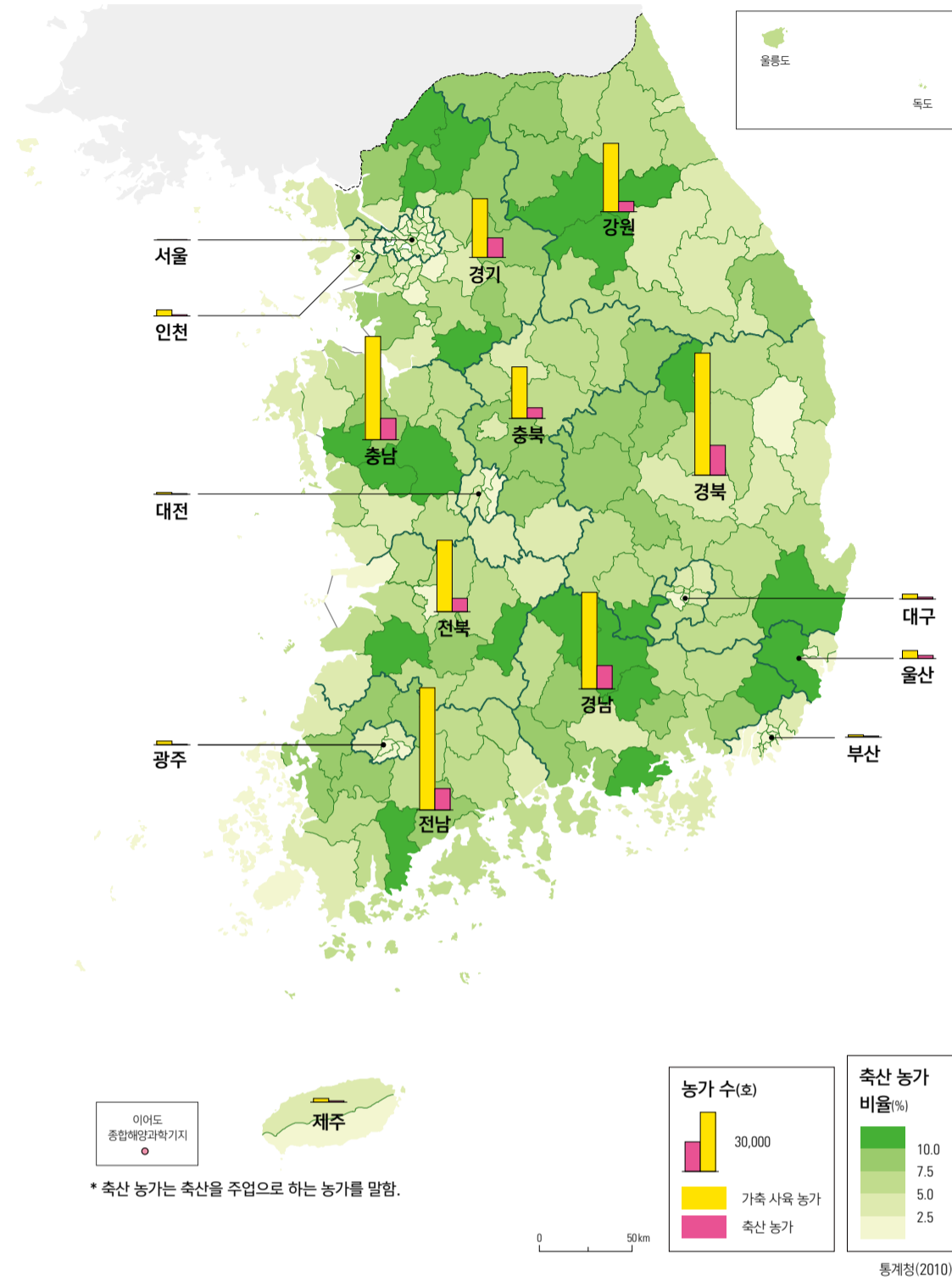
북도 서부 지역을 비롯해 눈이 많은 충청남도 일대에서도 과수 재배가 성행한다. 또 시설 작물 재배의 경우 1990년의 경우 대도시 주변 일부 시·군

지역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었지만, 2010년에는 시설 작물 재배가 상대적으로 발달한 지역(입지계수가 1.0 이상인 지역)이 크게 늘어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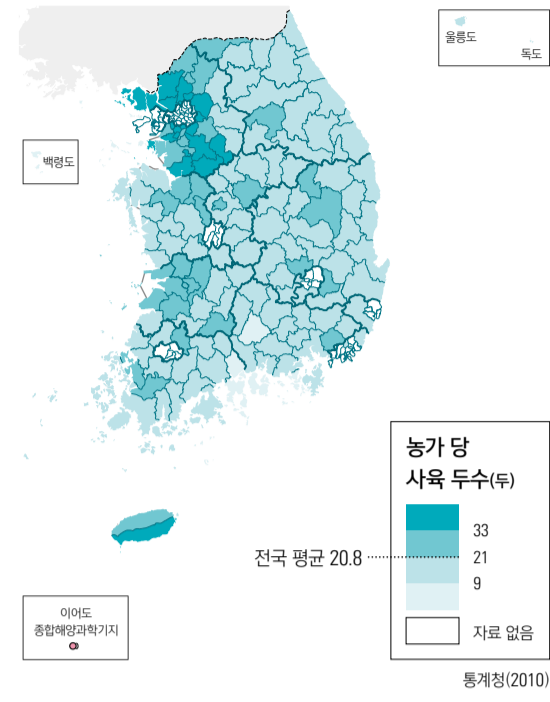
다. 특히 경기도 외곽 지역을 비롯해 내륙 지역 중에서도 시설 작물 재배가 발달한 곳이 생기고 있다.

축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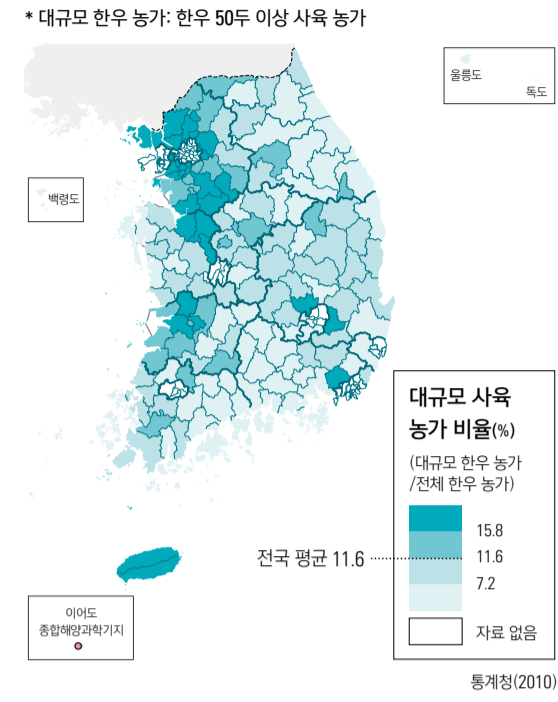
축산 농가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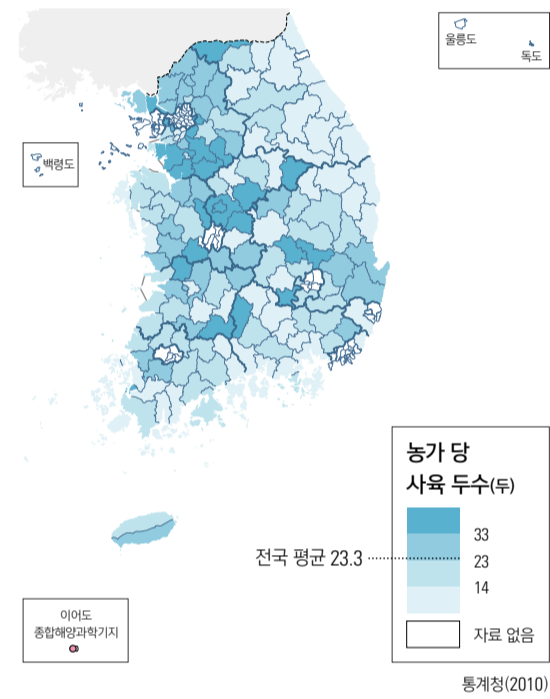
한우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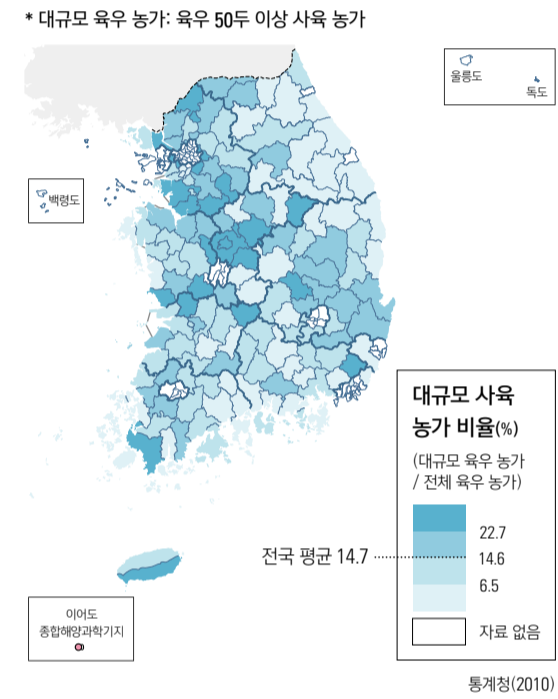
대규모 한우 농가의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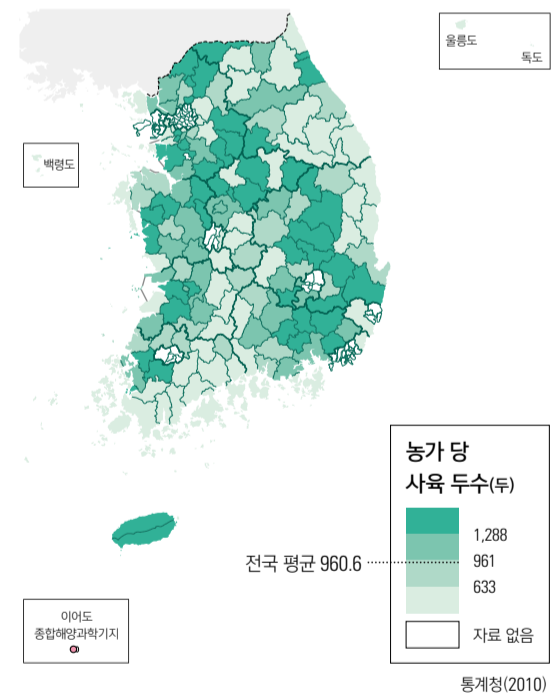
육우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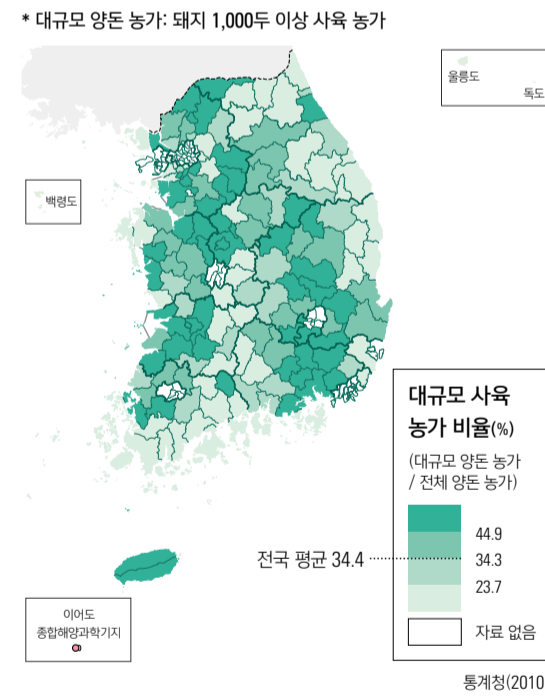
대규모 육우 농가의 비율(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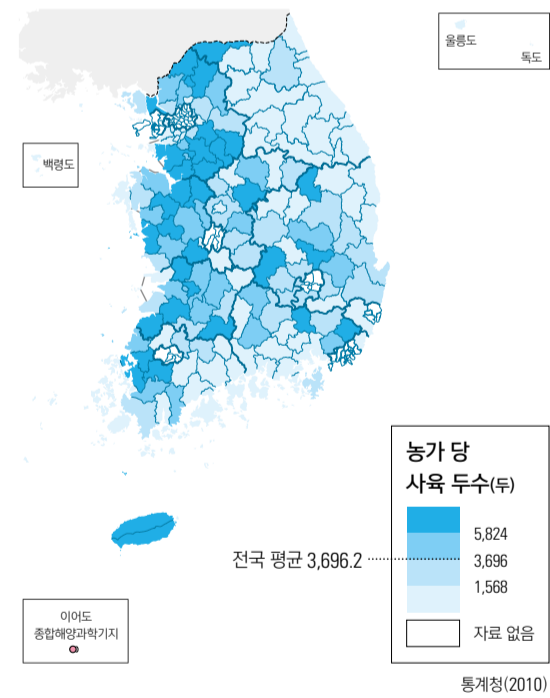
양돈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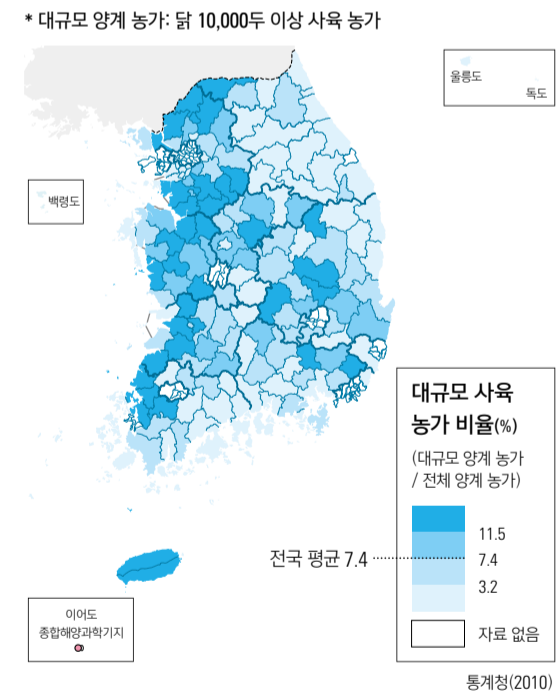
대규모 양돈 농가의 비율(2010년)



양계 농가의 평균 사육 두수(2010년)



대규모 양계 농가의 비율(2010년)



축산 주요 부문별 생산 구조 변화

구분	1990년			2010년		
	사육 농가(A)	전문화 농가(B)*	B/A(%)	사육 농가(A)	전문화 농가(B)*	B/A(%)
한우**	608,667	26,136	4.3	163,163	56,523	34.6
돼지	139,455	21,323	15.3	7,929	5,098	64.3
닭	131,850	9,490	7.2	46,397	4,915	10.6

\* 전문화 농가: 전문 축산 소득이 전체 농업 소득의 50%를 넘는 농가를 말함. \*\* 한우우는 한우와 육우를 의미함.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에서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부문 중의 하나이다. 1990년 이후 축산업 생산액은 연평균 6.7%씩 증가

하였고 2010년 이후 축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액의 거의 4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다. 표는 1990년과 2010년 두 시기의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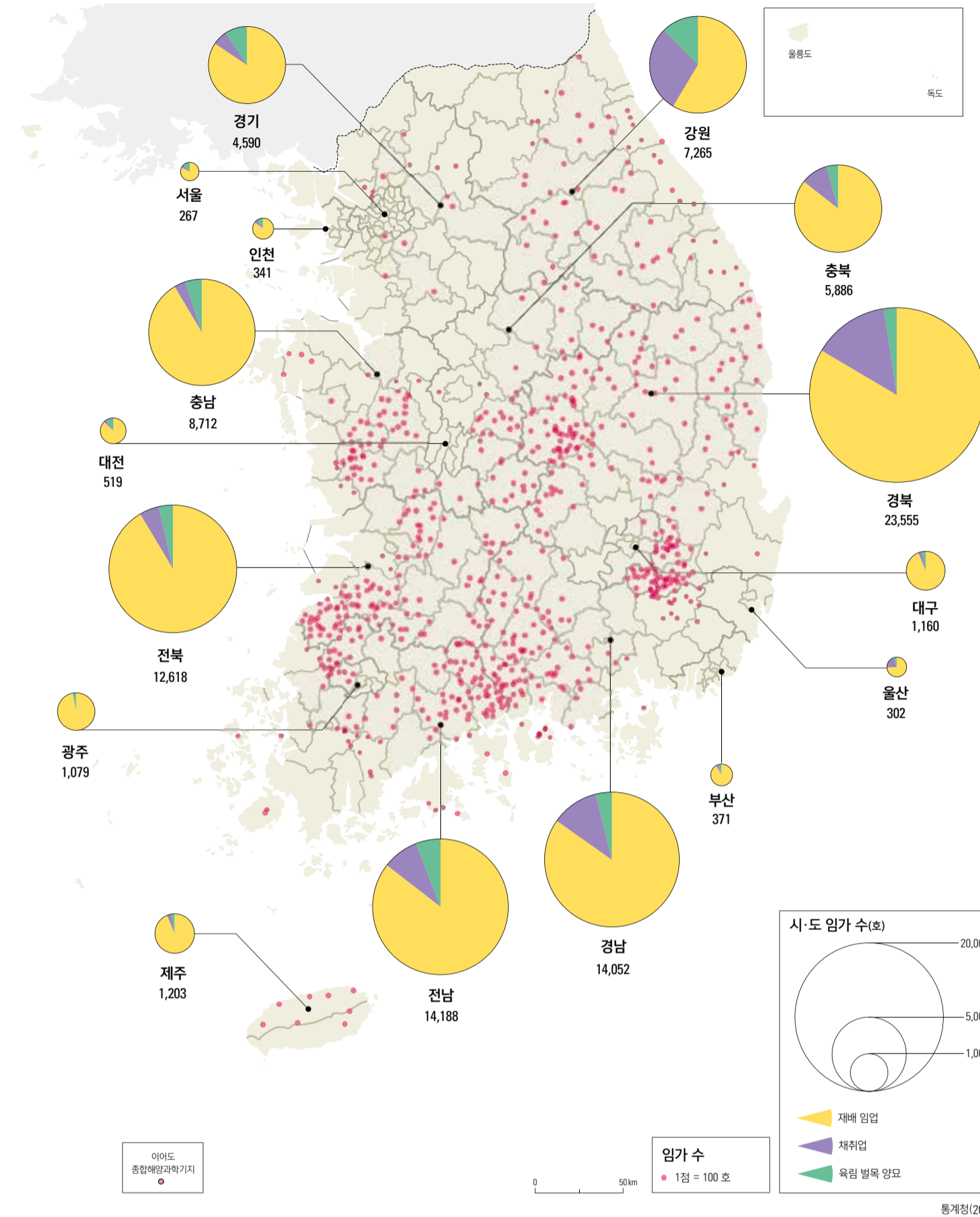
산 부문별 생산 구조를 비교한 것이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우, 돼지, 닭 모두 1990년 대비 2010년의 사육 농가가 크게 줄어들었지만, 농가당 사육 규모는 반대로 비약적으로 늘었다. 또 축산 경영만을 하거나 농가의 소득 중에 축산 경영 소득이 가장 많은 농가, 즉 전문화 농가는 크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축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사육 농가의 대규모화, 전문화와 함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전체 농가 중에서 축산 농가, 즉 축산만을 하거나 축산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3%이다. 축산 농가의 비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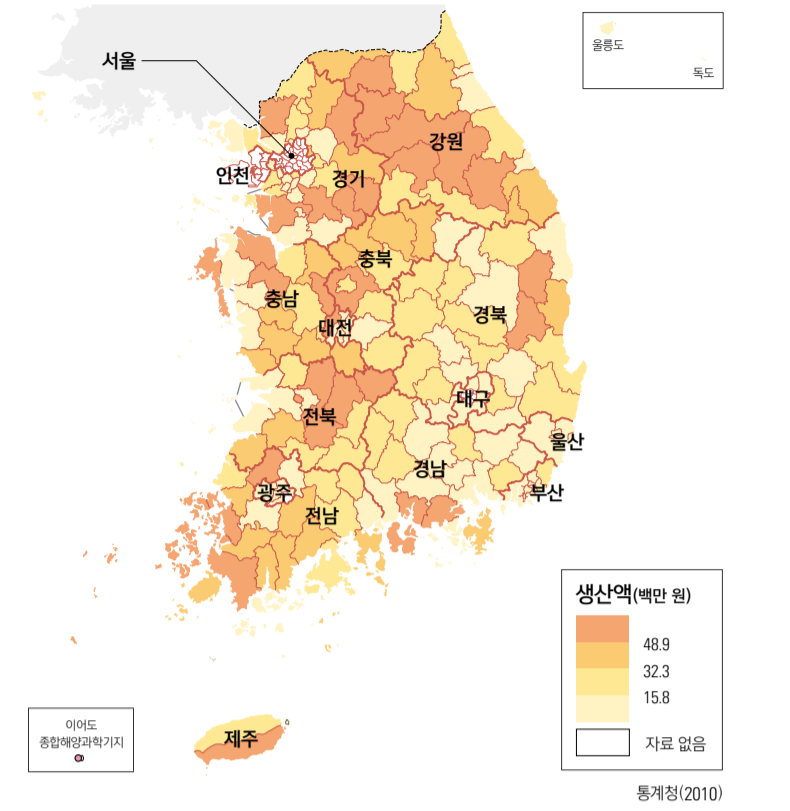
높은 지역들은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어 뚜렷한 지역적 집중 경향을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대규모 전문 축산 농가들의 분포는 지역적으로 집중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사육 가족 종류별로 농가당 사육 두수 및 대규모 사육 농가의 비율은 지역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대규모 축산이 발달할수록 축산 공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대규모 축산 농가의 입지 제약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축산 농가의 대규모화 및 전문화가 진행될수록 점차 축산업의 지역적 특화 경향도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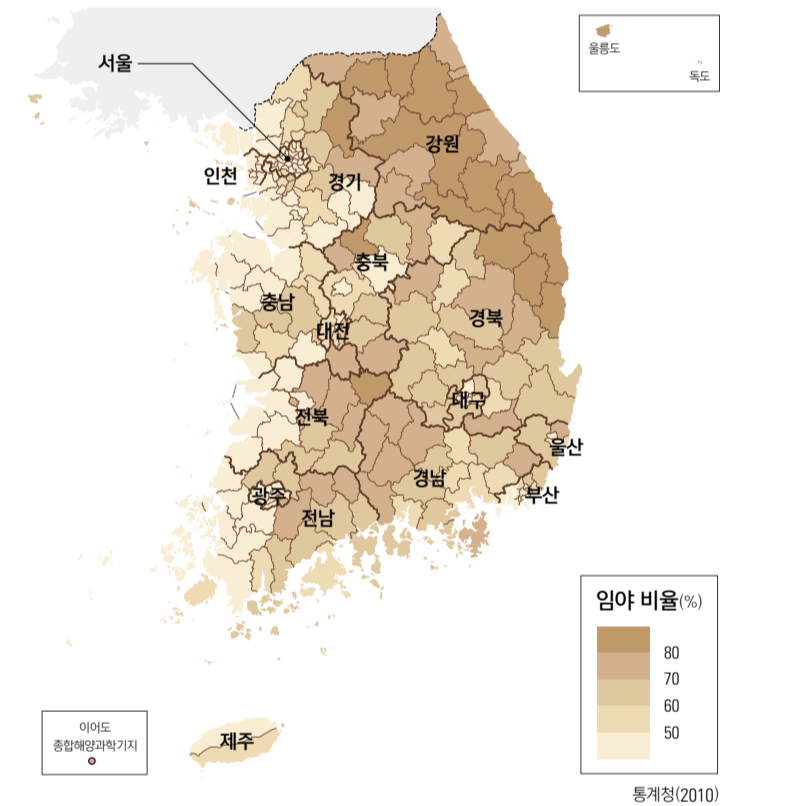
임가의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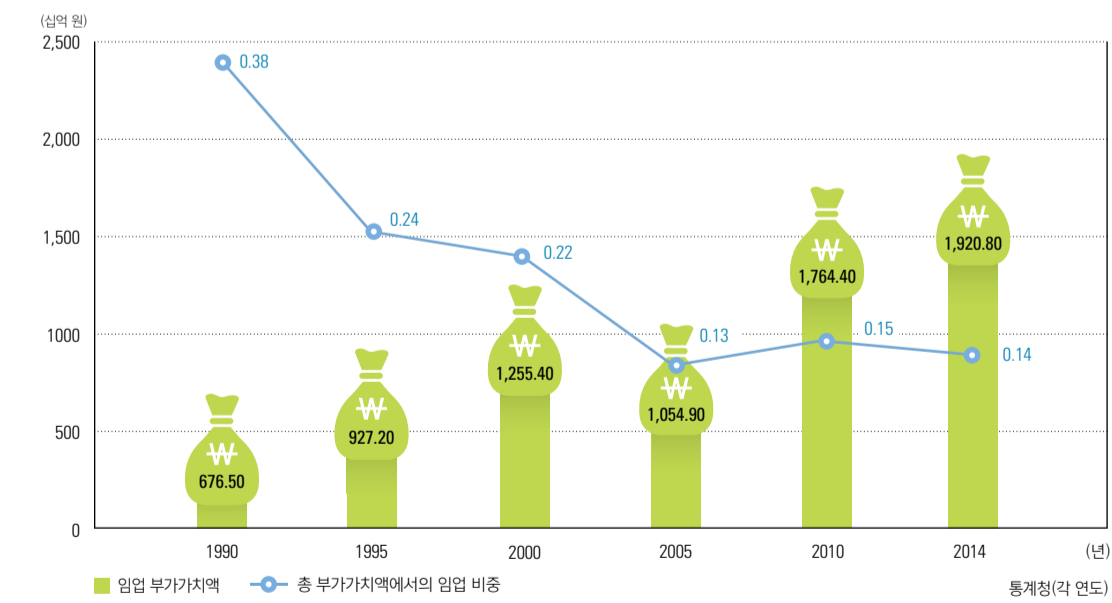
임가 호당 생산액(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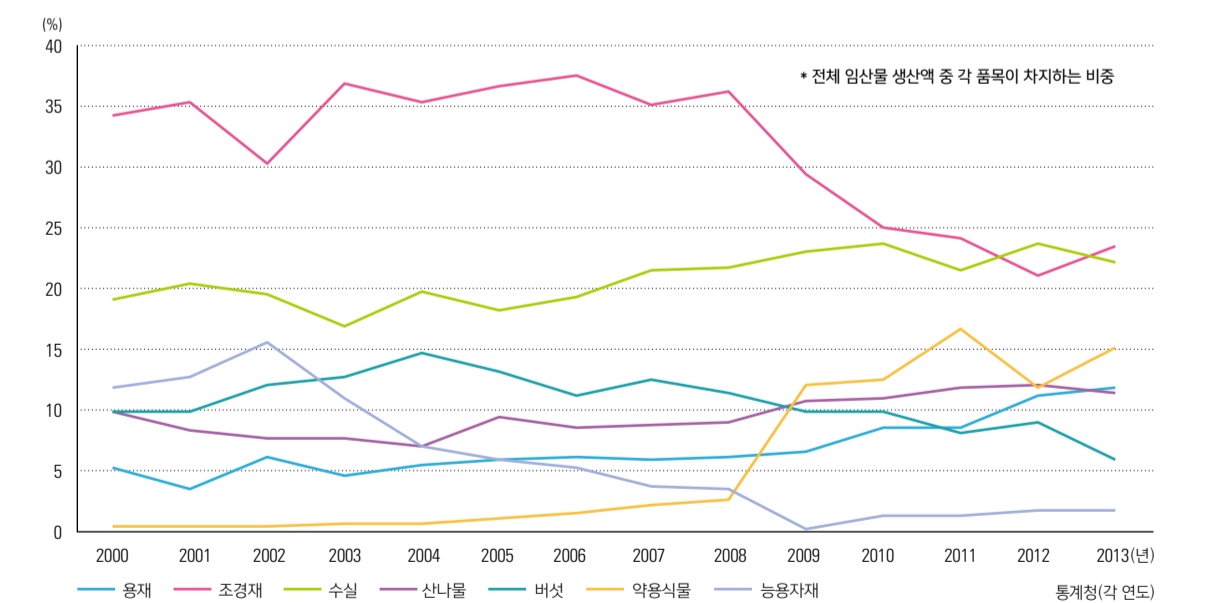
임야 비율(2010년)



임업 부가가치 생산액 추이



임산물 품목별 생산액 비중 추이



우리나라 임업이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통적으로 낮다. 1990년 이후 2014년 현재까지 매년 임업생산액의 비중은 국민 총생산액의 0.1~0.4% 사이에 머물렀다. 그러나 임업 가구는 과거에 비해 다소 늘어나고 있다. 2000년 당시 임업 가구는 66,320호였는데 2014년 현재 임업 가구는 95,557가구로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채취로 얻던 많은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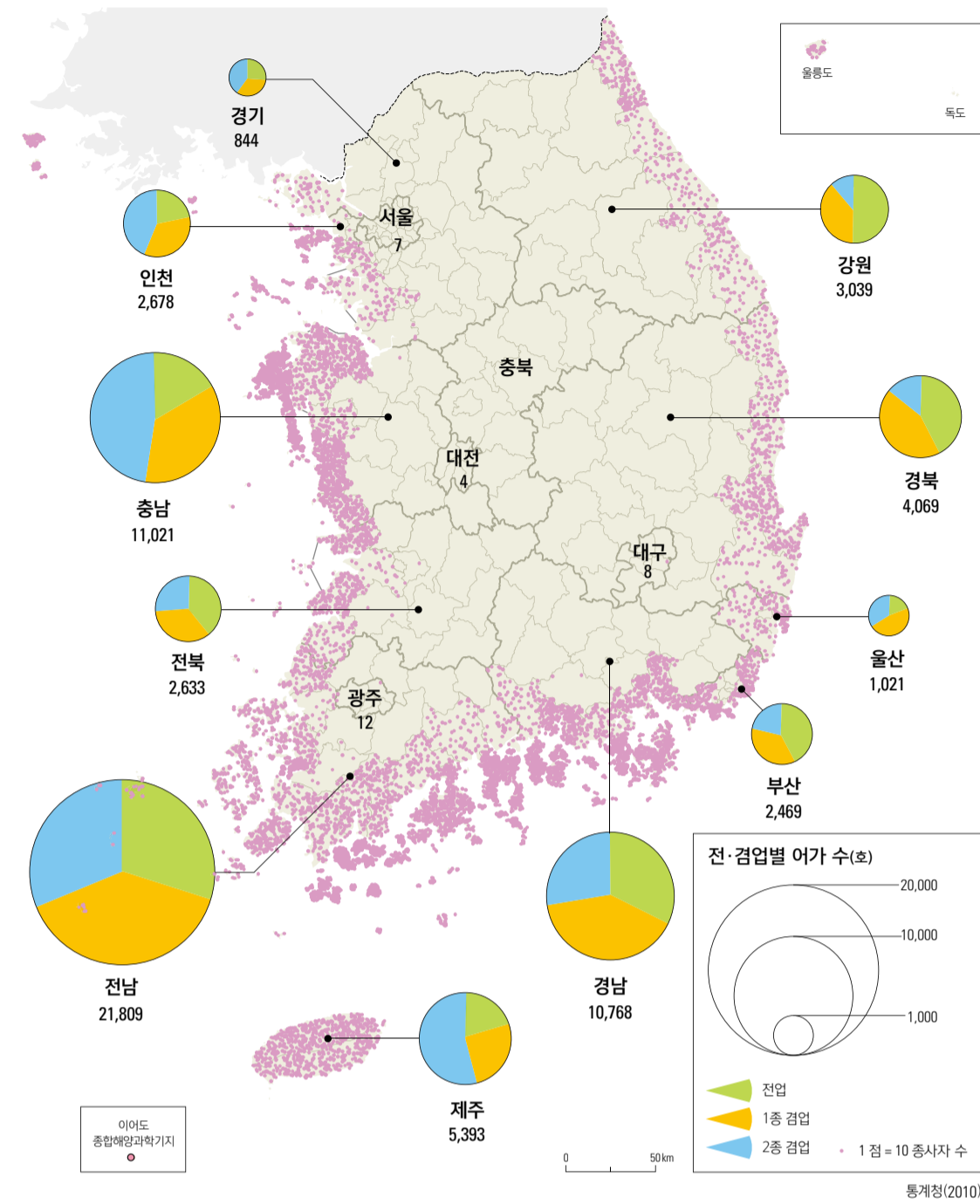
산물이 점차 직접 재배를 하는 방식으로 변한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에는 임가와 농가의 구분이 사실상 어려운 임업 가구가 많다. 2014년 현재,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 가구(재배 임가)는 전체 임업 가구의 96.1%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배 임가의 비중 증대로 농업이 발달한 지역인 전라남북도와 경상남북도에도 임업 가구가 많이 분포한다. 상대

적으로 산림이 발달한 강원도에는 전국 임업 가구의 7.6%만이 분포되어 있을 뿐이다. 다만 강원도의 경우 육림·벌목·양묘업 및 채취업에 종사하는 임업 가구의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 훨씬 높다. 임업 생산액 중 각 임산물의 비중도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산나물, 약용식물 그리고 유실수 열매의 생산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들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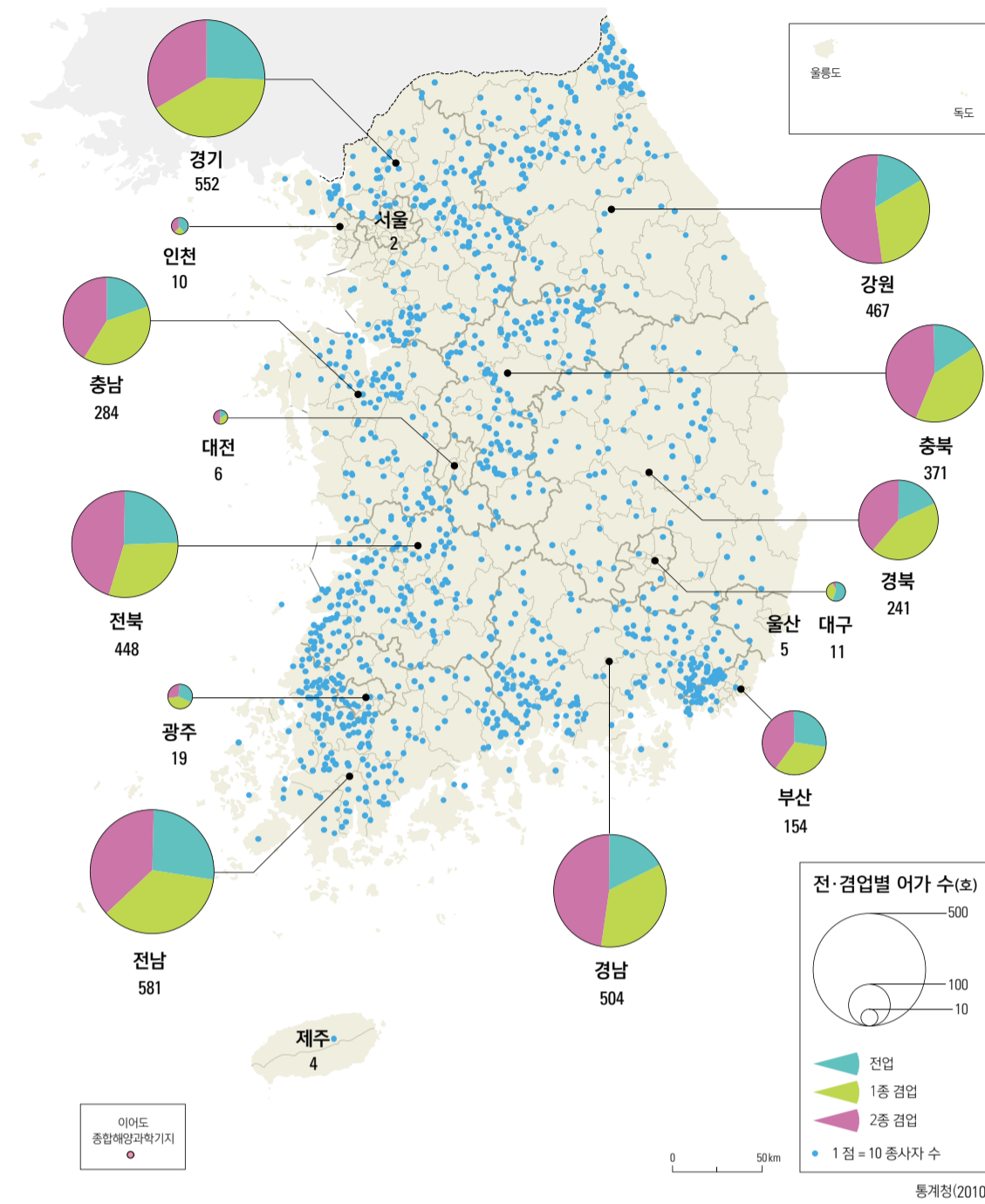
산물은 과거에는 주로 야생에서 채취되었지만, 최근에는 밭에서 대량으로 재배되면서 생산량 및 생산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 재배 임산물의 증가에 전체 임업 생산액이 늘어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어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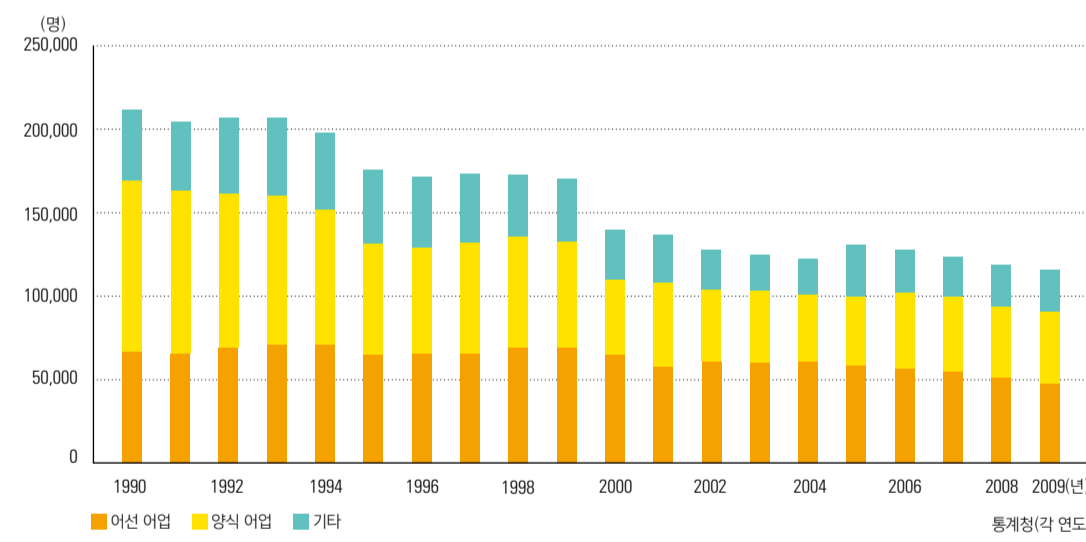
해수면 어업 종사자 및 어가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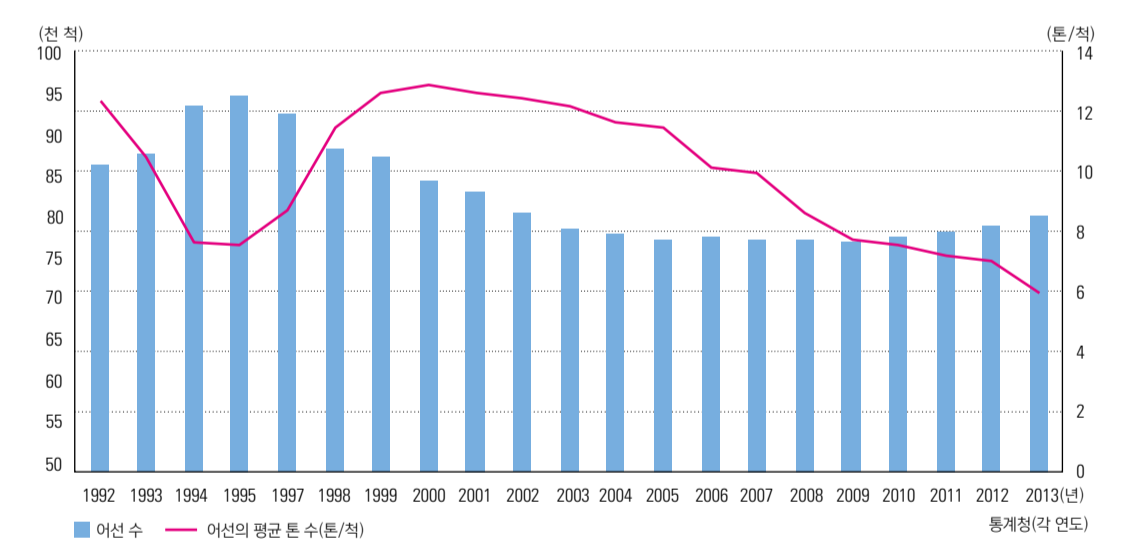
내수면 어업 종사자 및 어가 분포(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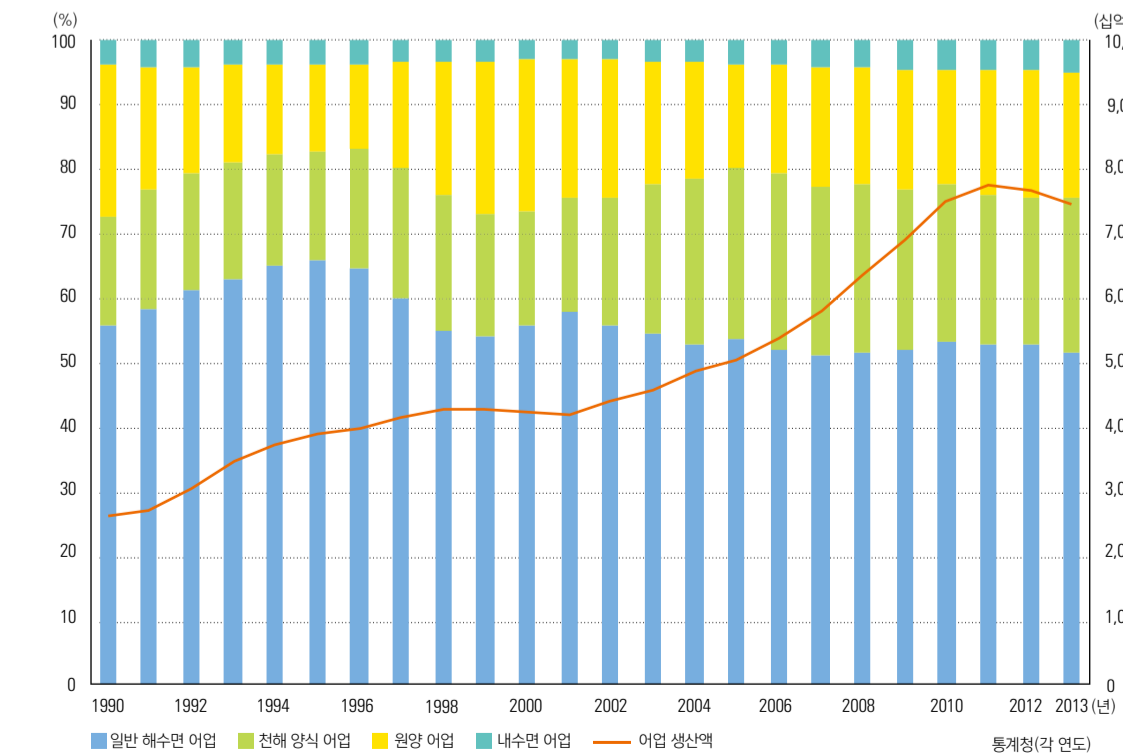
어업 종사 분야별 종사자(해수면)



어선의 수와 규모



어업 생산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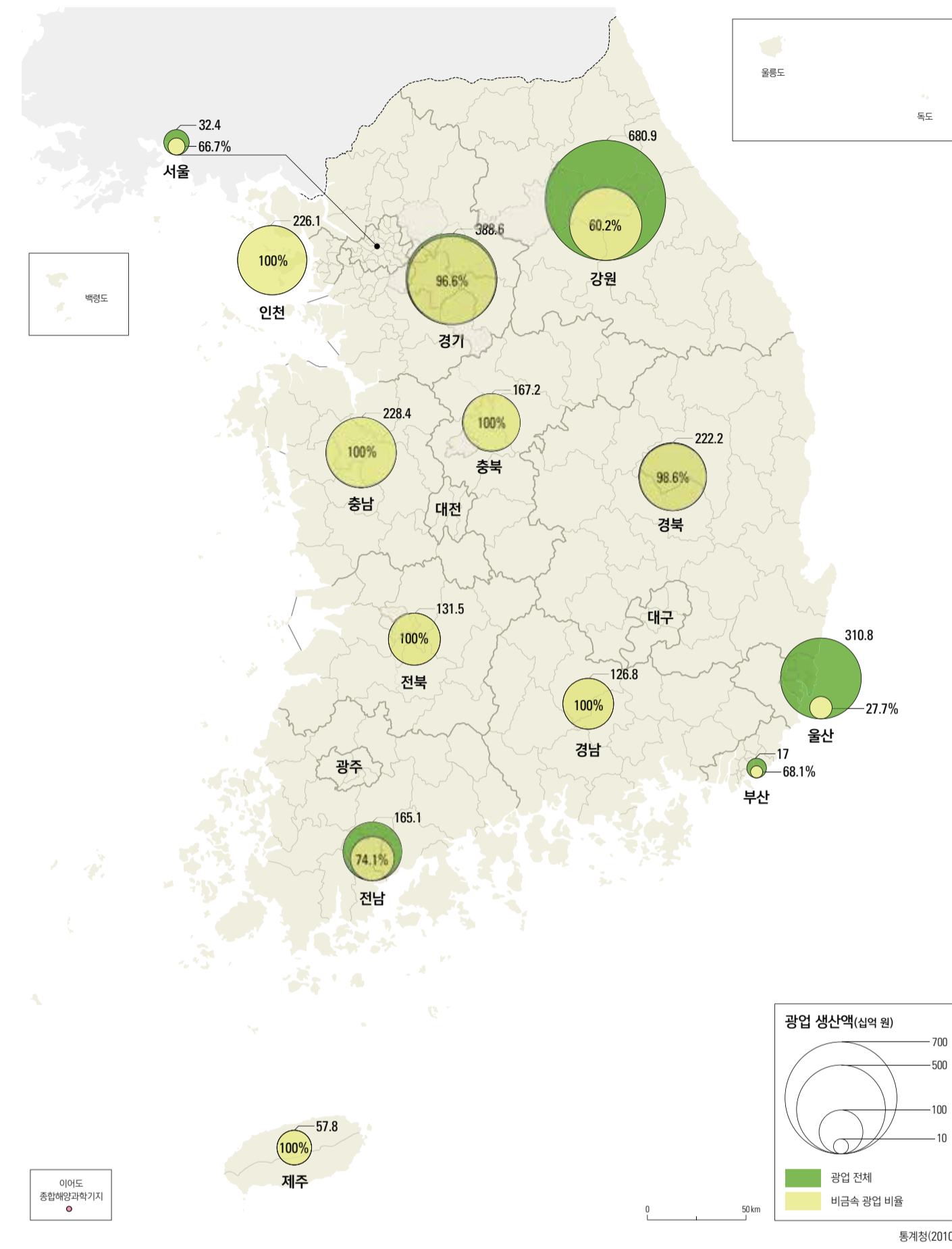
우리나라 어업은 그동안 수산 자원 고갈과 수입 수산물 증가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전통적으로 비중이 컸던 연근해 어업과 원양 어업의 쇠퇴가 두드러졌다. 다만 2000년대 들어 양식 어업과 내수면 어업이 성장하면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어업 총생산량과 생산액은 다소 증가하고 있다. 수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어업 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해수면 어업의 종사자 수는 1990년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내수면 어업의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에 약 36% 줄어 들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새로운 어업 인구의 유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어업 종사자도 고령화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 현재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2.7세에 이르고, 65세 이상 어업 종사자의 비율도 32.2%에 이른다.

전반적으로 어가의 영세성은 여전하다. 그동안 정부는 어선 수를 줄이고 어가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렇지만 2000년대 들어 어선 수와 어선의 평균 크기도 함께 감소하였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선의 대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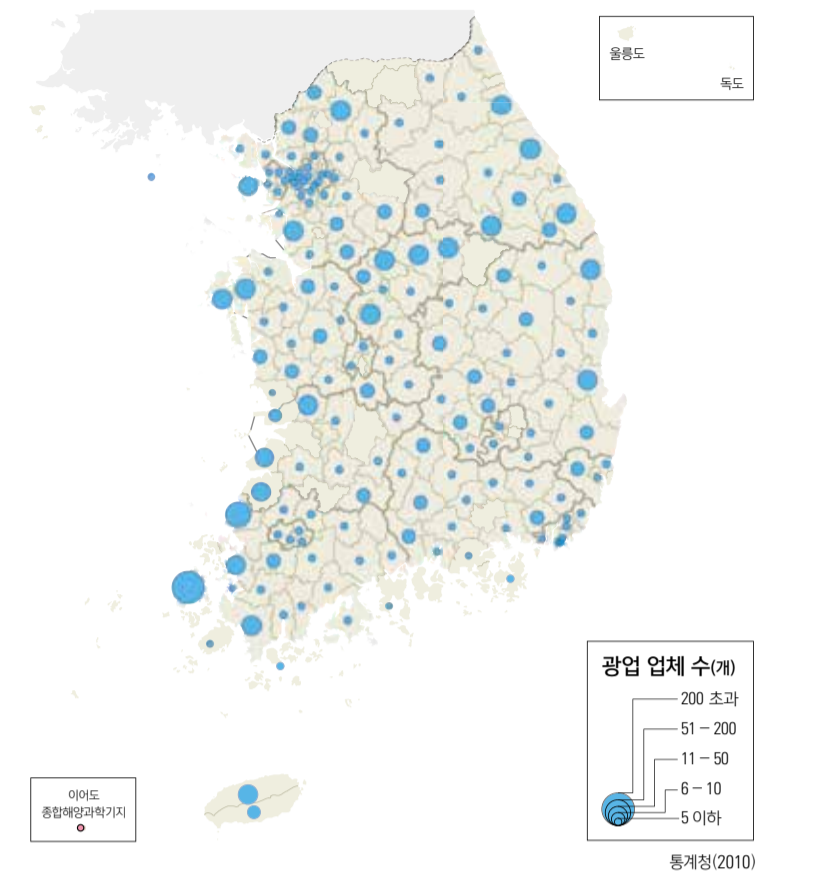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어가들은 어업 이외에 다른 소득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14년 현재에도 전업 어가는 전체 어가의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양식 어업 분야를 중심으로 대규모 경영을 하는 어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부분적으로 어가의 전문화 및 규모 확대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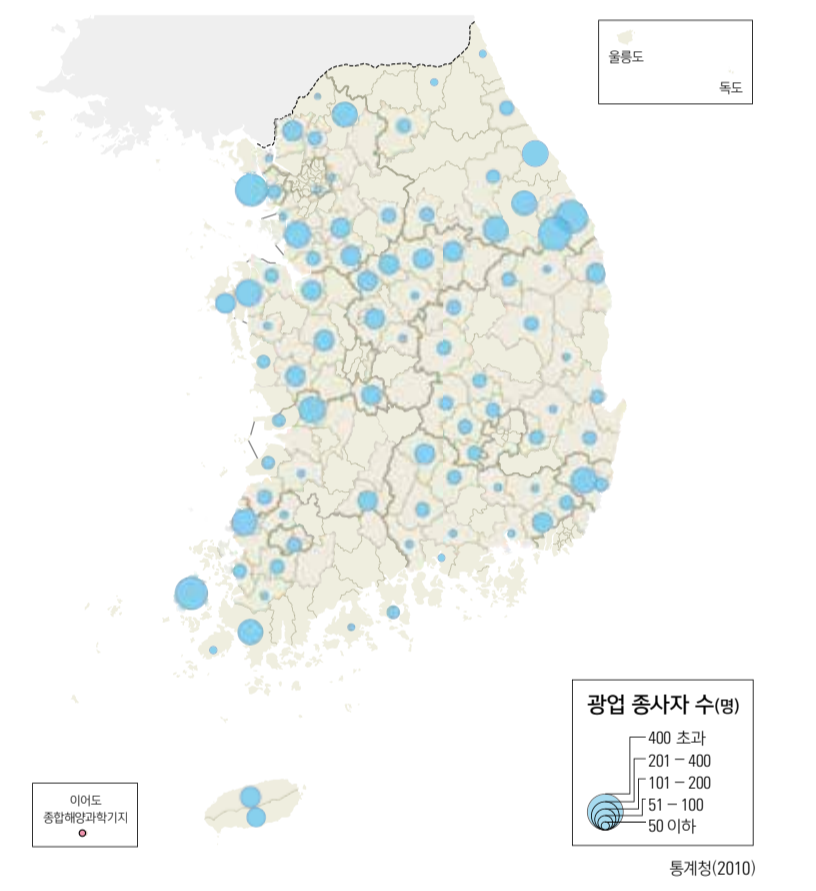
광업 생산액(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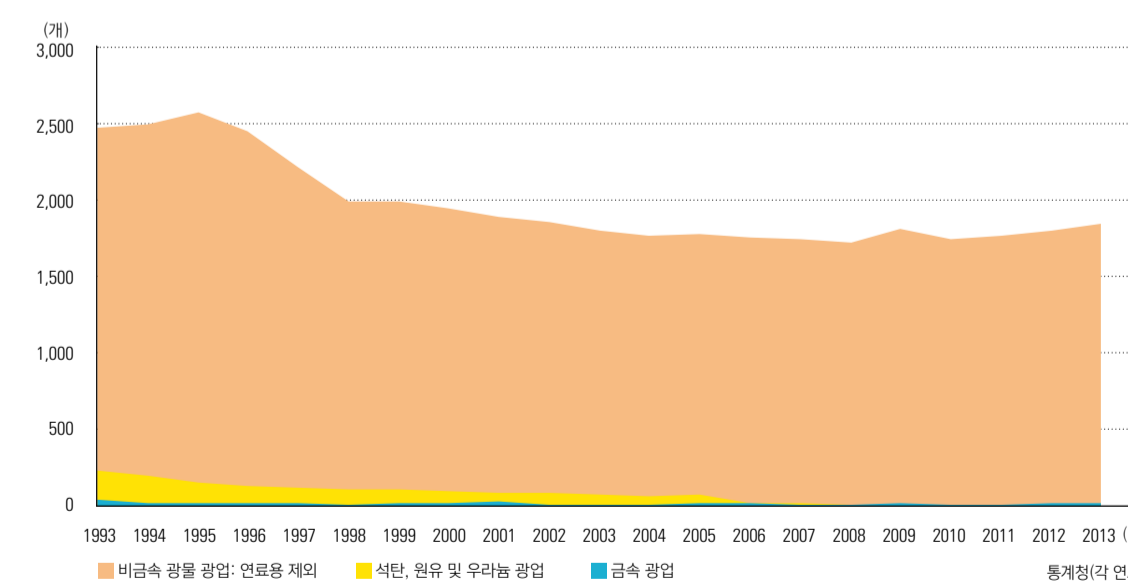
광업 업체 수(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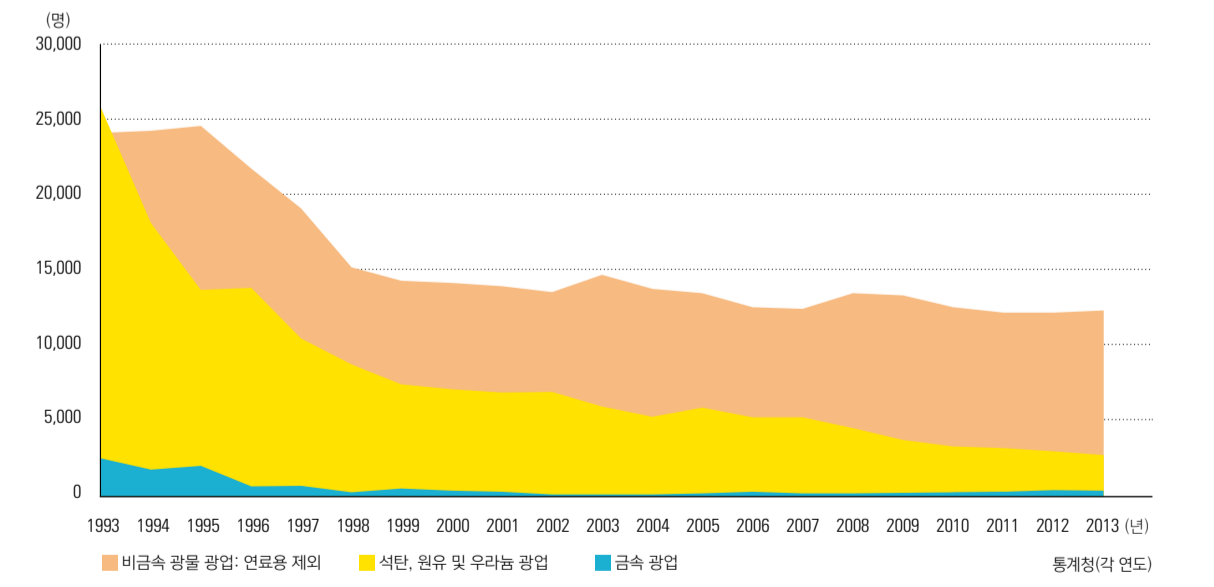
광업 종사자 수(2010년)



광업 중분류별 업체 수 추이



광업 중분류별 종사자 수 추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광물은 약 300종이고, 이중 유용한 광물은 140여 종에 이른다. 하지만 광물 자원으로 채굴되는 것은 20종 정도이며, 경제성을 갖출 정도로 매장량이 풍부한 광물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채굴되는 광물은 주로 비금속 광물과 석탄이다. 1990년대 이후 석탄 개

발이 줄어들면서 비금속광물 업종이 우리나라 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14년 현재 전체 광산업체의 약 98%가 고령토, 석회석, 규사 등을 생산하는 비금속 광물 생산 업체이며, 대부분 영세한 업체들이다. 고령토, 석회석, 규사 등은 전국적으로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광산

업체 및 종사자의 분포도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다. 2014년 현재 채굴되는 석탄 자원은 대부분 무연탄이다. 강원도와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등에 무연탄이 매장되어 있지만, 절반 이상이 태백산 지역의 삼척과 정선 일대에 매장되어 있다. 그러나 석탄 수요의 감소로 정부는 1989년부터 석탄 탄광의 폐